



서울대 同窓會 報

동창회 지표 •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金在淳
편집인 鄭宗澤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04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5 • FAX: 703-0755
인쇄처 한길기획

은행계좌번호 7500875
대체구좌 010017-31-0621565

제 236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7년 11월 15일

【1】



지난 10월 20일 열린 동창회 및 관악회 상임이사회에서 「서울대학교총동창회상」 제정안을 심의했다. (관련기사 14면)

「서울대 총동창회상」 제정에 동문 뜻 일치



누구나 받아서 기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칭찬과 賞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부터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남을 칭찬하거나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하는데 인색하다. 그대신 남의 약점을 꼬집고 헐뜯는데서 일종의 쾌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풀어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마디로 상대적 평가절하를 맛보기 싫어 너도 나도 함께 때문이고 살자는 「下向平準化」의식이 작용한 듯하다.

그러다보니 대통령은 물론 3부요인과 장, 차관을 지낸 수많은 정치인 가운데 그 시대의 영웅으로 기록되거나 평가되는 인물이 없다. 영웅은 차치하고라도 개인의 명예에 먹칠을 당하지 않고 정계를 떠나 보통

사람으로 살고 있는 고위공직자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그러다보니 요즈음 젊은이들에게 존경하는 한국인을 꼽아보라고 하면 박찬호 투수나 차범근 축구감독, 이름도 낯설은 연예인과 같은 이른바 인기인이라는

‘자랑스런 同門賞’을 만들자

답변은 들을 수 있지만 정치지도자나 공직자들의 이름은 들을 수 없다. 이같은 반응은 기성세대에서도 유사한 느낌이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김구 선생의 이름을 꼽는 사람은 있어도 정부수립 반세기를 맞아 국정을 이끌어 왔던 많은 당대 실력자들의 이름

은 들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추진중인 가칭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상」 제정 움직임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국내 최고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명실공히 인정받고 있는 서울대학교가 개교 51주년, 동창회 창립 28주년에 同門數만해도 벌써 23만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젊음이 배어있는 母校 동창회로부터 받는 賞은 어느 賞보다 명예롭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상」을 부지런하게 많이 만들어 내자. 그래서 「자랑스런 同門」들이 먼 훗날 우리 후손들로부터 여러 분야에서 한 시대의 「큰 人物」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가꾸어 나가자.

(圭)

「서울대가족 친목등산대회」 성황

3천5백여명이 관악산 청결운동 펼쳐



본회는 지난 10월 26일 金在淳회장, 鄭宗澤상임부회장, 모교 鮮于仲皓총장, 동창회 임원진과 모교 교직원들을 비롯해 3천5백여 동문과 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스카우트 운동을 겸한 「서울대가족 친목등산대회 및 관악산 청결운동」을 성대히 개최했다.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관악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집수를 마친 동문가족들은 기념품(스카프)과 쓰레기봉투를 받은 후 3백여명씩 그룹을 이뤄 모교 재학생의 인솔로 등반을 시작했다.

동문 가족들은 가을 단풍으로 물든 모교 교정을 지나 차량계의 출입문을 통해 관악산 공원내로 입장, 모교 외벽을 따라가다 아카시아공원, 약수다리, 제4야영장, 무너미 고개에 이르는 코스를 힘차게 행군하면서 관악산의 쓰레기를 주웠다.

행사장인 모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수목원 잔디밭에 이르기까지 6km의 산행을 마친 동문가족들은 차례로 줄을 서서 점심식사와 음료 등을 받아 각 단과대학 및 동기모임별로 자

리를 잡고 12시 30분까지 식사를 마쳤다.

이어李世震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기념식에서 金在淳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공자 말씀에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仁者樂山)고 했다」며 「산 위에 올라 먼 곳을 보며 서울대인이 용기를 갖고 조국의 현실에 무한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교 鮮于仲皓총장은 「10월의 아름다운 캠퍼스를 찾은 동문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하고 「이제 새로운 50주년을 시작하는 첫 해에 새로운 다짐을 갖자」고 말했다.

또한 그린웨이리 金麒麟상임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뉴욕지부동창회 尹延玉회장이 참석자를 대표해 그린스카우트 선서를 했다.

3부 친목과 단합의 시간은 작년에 이어 蔡賢九(82년 師大卒)동문과 金珍我(인문대 4년)양이 사회를 맡아 모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여학생들의 무용 공연, 동문들이 참여한 OX퀴즈, 어린 동문자녀들이 나와 립보게임을 펼치는 등 차가운 날씨에도 시종 화기애애한 분

위기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청아치과병원, 인천길병원, 수원지부, 법대12회, 구법산악회 등에 소속된 동문들이 함께 무대에 나와 멋들어진 노래와 재치있는 말솜씨로 흥겨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이날 행사를 위해 崔主鎬명예회장을 비롯한 3백여명의 동문들이 협찬해주었다. 〈협찬자 명단 5~7면 참조〉 참석한 동문 가족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았던 尹永錫(64년 商大卒·대우그룹 총괄회장)동문이 협찬한 자동차(티코)의 행운은 洪英善(63년 獸醫大卒)동문, 李竣鎔(60년 商大卒·대림그룹 명예회장)동문이 협찬한 오토바이의 행운은 모교 총무과 尹華植행정주사에게 돌아갔다. 특히 金在淳회장과 鮮于仲皓총장이 각각 협찬한 오디오세트와 어학교재는 申基澈(78회 農大卒)동문부부에게 각기 돌아가 행운과 기쁨을 두배로 안게 되었다.

교가제창을 끝으로 행사를 마친 동문가족들이 수목원 주변의 오물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운동을 펼침으로써 본 대회는 성대히 그 막을 내렸다.

울산 지부

신임 회장에 張世一동문 선임

울산지부동창회(회장 金石基)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진을 개편했다.

신임 회장에 張世一(63년 工大卒·일성(주)대표이사)동문을 선출하고 부회장에 李正一(69년 工大卒), 裴尙鎬(68년 工大卒)동문을 추가로 선임했다.

또한 전임 金石基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간사장에 李

世熙(69년 商大卒)동문, 부간사장에 劉載石(74년 齒大卒), 韓致鎬(73년 師大卒)동문을 선임했다.

同會는 지난 10월 15일 확대이사회를 개최하고 회비 모금, 재정 문제 등 동창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락처: 張世一회장 0522-39-0331)

(變)

모 일간지 「색연필」기사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27일자 모 일간지 「색연필」란에 「서울대가족 친목등산대회」와 관련한 기사가 게재되어 동문 여러분의 문의가 있어 본회는 그동안의 경위를 해명하고자 합니다.

기사내용중 「출입이 금지된 신림계곡쪽 쪽문을 뚫고 등산로로 들어가…」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20년간 매년 10월 넷째주 일요일에 열린 등산대회에 참석한 동문 가족들은 모교 교정을 둘러보고 차량계쪽에 있는 개폐장치가 설치된 출입문을 이용, 관악산 등산로로 등반해 왔습니다.

특히 본회에서는 사전에 관악구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 관악산 입장 및 등반코스과 관련해 관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관악구청 공문 접수이첩번호 1401)를 요청, 승락을 얻었으며 이를 재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월 17일 본회 총무과장이 직접 관악산 공원관리사무소를 방문, 담당자에게 행사내용을 적의 설명하고 별도의 연락이 없으면 행사를 진행해도 좋다는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 동창회측은 말썽이 나자 공원관리사무소 측에 전화를 걸어… 단체입

장 요금을 추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부분은 취재기자가 본회에 대한 문의와 확인절차도 없이 사실인 양 게재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색연필」란에 게재된 내용은 취재기자가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몇 사람의 전화제보만으로 기사화한 것입니다. 이에 본회 사무처는 해당 언론사와 취재기자에게 정확한 진상과 내용을 전화통화와 함께 FAX를 통한 서신으로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 동문가족들이 모교를 방문하고 관악산 청결운동을 겸해 산행한 것이 탈법 내지 불법 등반으로 기사화된 것에 대해 우선 본회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보도일지라도 모교와 동문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본회 사무처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회는 향후 동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련기관 등과 더욱 면밀한 협의·협조를 통해 원만한 행사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동 행사에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미술작품

李知禧作

(작가 약력)

- △84년 미대 졸업
- △85~88년 제1, 2, 3, 4회 형여형전
- △86년 현대 한국화 단면전 한국화 제3세대전
- △89년 한국화 신형상전
- △91~97년 개인전 4회
- △93년 뉴욕 Digital Salon
- △95년 제3회 대한민국 컴퓨터 그래픽스 창작대전 특선
- △96년 분분합합 6, 7회전
- △97년 Neo 97 한국미술동향전
- △현재 경희대, 한양여전 강사



「부화 9603」, 컴퓨터 그래픽, 1996.

주요목차

동문칼럼	8면
李翊燮국립국어연구원장	
기획탐방	9면
(주)퍼시스	
동문을 찾아서	13면
權赫昇·權泰竣동문	
개교 51주년 기념식	16면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姜晉求동문	
화제의 동문	22면
權吉相·閔丙一동문	

등산대회 협찬자

지난 26일 농생대 수목원에서 거행된 친목등산대회는 3천5백여명의 동문과 동문가족이 참가해 대성황을 이뤘고 참가자들은 풍성한 가을을 한껏 만끽하며 흥겨운 하루를 보냈다.

친목등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준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를 위해 협찬금품을 출연해주신 각계 동문들을 소개한다.

金在淳



52년 商大卒·本會會長
생터사 이사장
오디오 1 SET

崔主鎬



39년 農大卒·本會名譽會長
前우성그룹 회장
일금 1백만원

鮮于仲皓



63년 工大卒·本會名譽會長
모교 총장
어학교재 5 SET

鄭宗澤



58년 法大卒·本會常任副會長
충청전문대 학장
자전거 2대

金道和



47년 法大卒·冠岳會理事
변호사
일금 50만원

河永基



48년 文理大卒·本會副會長
제일생명(주)고문
행 10 SET

金相廈



49년 文理大卒·本會副會長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일금 50만원

張禮準



49년 商大卒·商大同窓會長
삼신윌스테이트 명예회장
일금 30만원

李光魯



51년 工大卒·大學院同窓會長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일금 50만원

具平會



51년 文理大卒·本會副會長
무역협회장
카세트 2대

白樂皖



51년 醫大卒·本會副會長
인제대 총장
일금 50만원

鄭哲圭



52년 工大卒·工大同窓會長
태성고무화학(주)사장
서류가방 20 SET

朴振煥



52년 農大卒·農大同窓會長
前농협전문대 학장
일금 50만원

金許男



52년 法大卒·本會副會長
국회의원
일금 50만원

姜信浩



52년 醫大卒·本會副會長
동아제약(주)회장
음료수 4천켄

李達雨



53년 工大卒·本會副會長
한국코트렐 회장
일금 50만원

金炳珍



50년 工大入
대림그룹 회장
일금 30만원

朴晟容



50년 文理大入·本會副會長
금호그룹 명예회장
제주항공권 2인1組 왕복3배

金德洙



55년 工大卒
장천화학. 사장
일금 50만원

李奭熙



55년 法大卒·法大同窓會長
대우JAPAN 회장
일금 50만원

申榮均



55년 齒大卒·本會副會長
국회의원
일금 1백만원

金貞植



56년 工大卒·本會副會長
대덕전자(주)회장
일금 50만원

李商淳



56년 工大卒
롯데건설(주)사장
일금 1백만원

李乃均



56년 商大卒·冠岳會理事
(주)삼화도자기 대표
식기 20 SET

宋斗瀾



56년 醫大卒·本會副會長
중앙복지문제연구소 이사장
일금 50만원

姜晋求



57년 工大卒·本會副會長
삼성전자(주)회장
비디오 2대

李宗勳



57년 工大卒·本會副會長
한국전력 사장
일금 50만원

李憲祖



57년 文理大卒
LG인화원 회장
일금 30만원

鄭仁奎



57년 法大卒·本會副會長
현대종합금융(주)회장
일금 50만원

趙南煜



57년 法大卒·本會副會長
삼부토건(주)회장
일금 50만원

金雄世



57년 商大卒
롯데월드 사장
롯데월드이용권 50매

金玄培



57년 商大卒
한미리스(주)사장
일금 30만원

元容勳



57년 商大卒
대림통상(주)사장
압력솥 5개

李在鎭



57년 商大卒
동화은행장
일금 30만원

李吉女



57년 醫大卒·醫大同窓會長
의료법인 길병원 이사장
일금 50만원

張翼龍



58년 工大卒·本會副會長
(주)서광 회장
티셔츠10벌, 화장품 20 SET

金光鉉



58년 法大卒
장기신용은행장
일금 30만원

延瑛圭



58년 商大卒
한국증권협회 회장
일금 30만원

尹志炳



58년 獸醫大卒·獸醫大同窓會長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사장
일금 50만원

張永壽



59년 工大卒
(주)대우건설 회장
일금 30만원

李圭澄



59년 文理大卒
국민은행장
일금 30만원

許浚



59년 法大卒·冠岳會理事
대우증권 회장
일금 50만원

申復泳



59년 商大卒
서울은행장
일금 30만원

李金器



59년 藥大卒
일동제약·남양산업 회장
일금 50만원

高建



60년 文理大卒
국무총리
일금 30만원

宋彦鍾



60년 法大卒
광주광역시장
일금 30만원

李竣鎔



60년 商大卒·本會副會長
대림그룹 명예회장
오토바이 1대

金讚淑



60년 齒大卒·齒大同窓會長
청아치과병원장
일금 50만원

趙庚穆



61년 工大卒
한국케이블TV협회장
일금 30만원

趙南赫



61년 工大卒
동일방직(주)사장
숙옷 5 SET

孫京植



61년 法大卒·冠岳會理事
제일제당 회장
참기름 20 SET

尹世榮



61년 法大卒
(주)서울방송 회장
칼라TV 2대

金基中



61년 商大卒
(주)경방 사장
일금 30만원

俞炳憲



61년 商大卒
한불종합금융(주) 사장
일금 30만원

許洪



61년 商大卒
대동은행장
일금 30만원

卞圭七



62년 法大卒
LG상사 회장
신사복상품권 3배

元喆喜



62년 法大卒
농협중앙회 회장
음료수 2천켄

金鮮東



63년 工大卒
(주)쌍용정유 대표
주유권 16매

鄭淳着



63년 工大卒
선경건설 사장
일금 30만원

趙昌杰



63년 工大卒
(주)한샘 사장
일금 30만원

洪性大



63년 文理大卒·冠岳會理事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
일금 50만원

尹元錫



63년 法大卒
대우증권 회장
일금 30만원

鄭之兌  63년 法大卒 한국상업은행장 일금 30만원	高斗模  63년 商大卒 미원그룹 회장 일금 30만원	金成圭  63년 商大卒 경남모직 사장 일금 50만원	金泰球  63년 商大卒 대우자동차 회장 일금 30만원	朴英珠  63년 商大卒 이건산업 회장 일금 30만원	孫吉丞  63년 商大卒 SK텔레콤 부회장 일금 30만원	申熙澈  63년 商大卒 금화기획 대표 일금 30만원
李洪鎔  63년 商大卒 국민신용카드 사장 일금 30만원	曹甲周  63년 商大卒 신송식품(주)회장 된장 및 고추장 4백개	韓亨洙  64년 工大卒 (주)새한 부회장 의료교환권 5매	李典九  64년 農大卒 前뉴욕지부회장 일금 50만원	尹美子  64년 美大卒·冠岳會理事 규수당 대표 일금 50만원	金振晚  64년 法大卒 한미은행장 일금 30만원	崔秉烈  64년 法大卒·本會副會長 국회의원 일금 50만원
卞柱仙  64년 師大卒·本會副會長 걸스카우트연맹 총재 일금 50만원	尹永錫  64년 商大卒·冠岳會理事 대우그룹 총괄회장 자동차 1대	申勝教  65년 工大卒 LG건설 사장 일금 30만원	沈玉鎮  65년 工大卒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일금 30만원	表相基  65년 工大卒 한국무역대리점협회 회장 일금 30만원	金英大  65년 法大卒·本會副會長 (주)대성 부회장 일금 50만원	柳基範  65년 法大卒 대우통신(주)사장 전화기 10대
李世馥  65년 法大卒 나드리화장품(주)부사장 화장품 20 SET	金恒德  65년 商大卒 (주)유공 부회장 주유권 6매	朴根浚  65년 商大卒 대한제당 부회장 선물 15 SET	朴容晟  65년 商大卒·本會副會長 두산그룹 부회장 맥주 4천켤, 소주 2천켤	吳昌圭  65년 商大卒 LG IBM PC(주)사장 컴퓨터 1대	李大遠  65년 商大卒 삼성항공(주)부회장 자동차카메라 5대	崔彈  66년 工大卒 쌍용엔지니어링 사장 일금 30만원
權攸久  66년 法大卒 LG건설 사장 일금 30만원	金英泰  66년 法大卒 한국산업은행 총재 일금 30만원	 洪英善동문(左)이 자동차 경품의 행운을 안았다.			張龍均  67년 工大卒 (주)SKC 사장 일금 30만원	尹赫基  67년 文理大卒 서울방송 사장 일금 30만원
金忠煥  67년 商大卒 한국전자(주)사장 일금 30만원	李燦河  67년 經大院卒 신한회계법인 대표 일금 30만원				金基炳  67년 行大院卒·本會副會長 롯데관광 회장 동남아관광여행권 2매	孔大植  68년 經大院卒·經大院同窓會長 대한설비공업(주)대표 일금 50만원
李益治  69년 商大卒 현대증권 사장 일금 30만원	金鍾國  70년 農大卒 두산제그림 대표 원지 3BOX	李相哲  71년 工大卒 한국통신프리텔 사장 PCS 3대	李弘中  71년 工大卒·冠岳會理事 화성산업 사장 일금 50만원	玄在賢  71년 法大卒·本會副會長 동양그룹 회장 땅콩카라멜 4천개, 일금 50만원	金泓殖  71년 經大院卒 금복주·경주법(주)회장 일금 30만원	李濟薰  71년 新大院卒·新大院同窓會長 삼성그룹회장비서실 부사장 일금 50만원
洪錫炫  72년 工大卒·本會副會長 중앙일보 사장 일금 50만원	李大榮  72년 商大卒 금강제화 공동대표 구두상품권 5매	魏駿燦  72년 敎大院卒·敎大院同窓會長 학교법인 한알학원 이사장 일금 50만원	朴柱鐸  74년 商大卒·冠岳會監事 수산그룹 회장 일금 50만원	崔炳敏  75년 文理大卒 대한필프사장 물티슈 1천2백개	文大源  75년 文理大卒 코리아계록스 부회장 일금 30만원	鄭夢準  75년 商大卒·本會副會長 국회의원 무선전화기 3대
李珉和  76년 工大卒 (주)메디슨 사장 일금 30만원	柳津  83년 人文大卒 종산산업(주)사장 일금 30만원	崔元榮  85년 大學院卒·本會副會長 시사저널사 회장 일금 50만원	崔鉉烈  3기 AMP·冠岳會理事 엔케이그룹 회장 CD5대, 손목시계5개, 일금50만원	鄭壯皓  14기 AMP LG텔레콤 사장 PCS 3대	姜聖模  17기 AMP 런나이코리아(주)회장 일금 30만원	金斗煥  17기 AMP 한국화장품 사장 화장품 10 SET
趙亮鎬  29기 AMP 대한항공 사장 제주항공권 3매	趙乃璧  31기 AMP 라이프그룹 회장 일금 30만원	俞相玉  39기 AMP (주)코리아나화장품 사장 화장품 10SET	崔在英  11기 AIP·AIP同窓會長 동양엔지니어링 회장 일금 50만원	家政大同窓會 — 일금 50만원	看護大同窓會 — 일금 50만원	藥大同窓會 — 일금 50만원
				音大同窓會 — 일금 50만원		

▲ 20만원 협찬 동문 명단

玄勝鍾	43년	法大卒	건국대 이사장
尹相澈	51년	藥大卒	수정약국 대표
閔丙哲	52년	醫大卒	서울중앙병원장
朴佑炳	56년	工大卒	국회의원
韓甲洙	56년	文理大卒	한국가스공사 사장
張在植	56년	法大卒	국회의원
金範來	56년	獸醫大卒	(주)동우 회장
慶世浩	57년	工大卒	(주)가희 대표
徐廷旭	57년	工大卒	SK텔레콤 사장
李喜鍾	57년	工大卒	LG산전 부회장
鄭然世	57년	工大卒	한국선금ENG 대표
朴孟浩	57년	文理大卒	민음사 사장
崔珏圭	57년	文理大卒	강원도지사
李祥根	57년	商大卒	신용금고연합회장
張天錫	57년	獸醫大卒	중앙물산상사 대표
徐鎮根	58년	工大卒	중앙학원 이사장
權肅一	58년	文理大卒	과학기술처장관
全錫洪	58년	文理大卒	국회의원
李貴昊	58년	法大卒	코리아제록스 사장
李鍾勳	59년	工大卒	성하지질 대표
柳宗夏	59년	文理大卒	외무부장관
潘成雨	59년	法大卒	흥국생명 대표
金鍾國	59년	商大卒	보람은행 감사
李栽馥	60년	文理大卒	동양시멘트 사장
李鍾奎	60년	文理大卒	쌍용자동차 사장
金仁煥	60년	法大卒	효성T&C 사장
金學鎔	60년	法大卒	경남기업 대표
韓基宣	60년	法大卒	범양상선 회장
徐立圭	61년	工大卒	우림콘크리트 대표
姜慶植	61년	法大卒	경제부총리
柳時烈	61년	法大卒	제일은행장

李相得	61년	商大卒	국회의원
申昌德	62년	工大卒	영창건설 부회장
李輔植	62년	農大卒	산림청장
吳世熙	62년	法大卒	LG홈쇼핑 사장
姜奎錫	62년	師大卒	강릉대 총장
金柱鎔	63년	工大卒	고려산업개발 대표
朴贊敏	63년	工大卒	LG ENG 대표
俞玄植	63년	工大卒	삼성종합화학 대표
沈利澤	63년	工大卒	대한항공 부사장
趙正濟	63년	文理大卒	해양수산부장관
金鍾求	63년	法大卒	법무부장관
李永範	63년	法大卒	변호사
崔明善	63년	法大卒	변호사
玄輝男	63년	法大卒	동아생명 부사장
朴龍二	63년	商大卒	제일은행 감사
徐正甫	63년	商大卒	흥국상사 사장
成夏鉉	63년	商大卒	한화국토개발 사장
李明賢	64년	文理大卒	교육부장관
李永來	64년	文理大卒	대통령행정수석
柳常悅	64년	法大卒	고속철도공단 이사장
李桓均	64년	法大卒	건설교통부장관
河光彦	64년	師大卒	원주MBC 사장
金振範	64년	商大卒	한외종합금융 사장
沈載榮	64년	商大卒	롯데기공 대표
池憲均	64년	商大卒	금강제화 부회장
安恭嫻	64년	行大院卒	국민투신증권 회장
成紀雄	65년	工大卒	대림산업 사장
郭英哲	65년	農大卒	동아건설 사장
愼右宰	65년	文理大卒	대통령공보수석
田允喆	65년	法大卒	공정거래위원장
曹海寧	65년	法大卒	내무부장관
朴成錫	65년	商大卒	한라그룹 기획실장
裴鍾烈	65년	商大卒	제일기획 부사장

李海淳	66년	文理大卒	대통령의전수석
康炳浩	66년	法大卒	(주)대우무역 사장
金仁浩	66년	法大卒	대통령경제수석
李淳鍾	66년	法大卒	한화 대표이사
沈大平	66년	商大卒	충남도지사
金宗哲	66년	齒大卒	세종치과원장
盧敬燮	67년	商大卒	한화건설 부사장
李相賢	68년	文理大卒	국회의원
姜文昌	68년	商大卒	두산건설 대표
李光洙	68년	藥大卒	신광신약 대표
李孝桂	68년	行大院卒	농림부장관
韓正男	69년	農大卒	비알코리아 대표
都日圭	69년	文理大卒	육군참모총장
金鍾國	69년	法大卒	진안통상 대표
徐勇雄	69년	師大卒	국회의원
朴鍾奭	69년	商大卒	예금보험공사 사장
禹鍾一	69년	商大卒	동부한농 사장
尹洪九	70년	工大卒	동양산업기계 대표
潘基文	70년	文理大卒	대통령외교안보수석
李起浩	70년	商大卒	노동부장관
申允植	70년	行大院卒	데이콤 고문
宋泰鎬	72년	文理大卒	문화체육부장관
李三燮	72년	法大卒	금호합부금융 대표
曹貞植	72년	法大卒	가문건설 사장
金仲秀	73년	商大卒	조세연구원장
姜在涉	74년	法大卒	국회의원
孫宣奎	74년	行大院卒	한국신문인크(주)사장
李賢九	75년	商大卒	신세기투자신탁 사장
李錫玄	78년	法大卒	국회의원
朱炳德	79년	行大院卒	충북도지사
權琪述	9기	AMP	국회의원
李銀鮮	21기	AMP	한국아쿠르트 회장
申東浩	33기	AMP	한국PC통신 사장

李榮德	52년	師大卒	정신문화연구원장
孫一根	51년	法大入	백상기념관장
朴永淑	55년	齒大卒	사전치과병원장
咸承浩	57년	工大卒	조흥화학공업 회장
崔滿麟	58년	美大卒	국립현대미술관장
金昌悅	58년	法大卒	방송위원회 위원장
朴世熙	59년	文理大卒	모교 자연대 교수
林采柱	59년	商大卒	국세청장
曹章煥	60년	農大卒	단국대 총장
金圭甲	61년	工大卒	협성실업 대표
金元世	61년	農大卒	현대금속 회장
林炯斗	61년	文理大卒	SBS제작본부장
孔魯明	61년	法大卒	前외무부장관
李顯求	61년	法大卒	국회 도서관장
金義在	62년	法大卒	국가보훈처 차장
鄭址炯	62년	法大卒	서울고등법원장
姜洙憲	62년	商大卒	대동벽지 대표
裴茂基	62년	商大卒	중앙노동위 위원장
沈載德	63년	農大卒	수원시장
李東和	63년	文理大卒	서울신문 주필
李明海	63년	文理大卒	감사원 사무총장
文鍾洙	63년	法大卒	대통령민정수석
黃善杓	63년	法大卒	한국언론연구원장
姜 寬	64년	工大卒	코오롱유화 사장



등산대회에 참석한 동문가족들이 그린스카우트 선서를 했다.



모교 사대 체육교육과 여학생들이 현대무용을 선보였다.

▲ 10만원 협찬 동문 명단

李榮德	52년	師大卒	정신문화연구원장
孫一根	51년	法大入	백상기념관장
朴永淑	55년	齒大卒	사전치과병원장
咸承浩	57년	工大卒	조흥화학공업 회장
崔滿麟	58년	美大卒	국립현대미술관장
金昌悅	58년	法大卒	방송위원회 위원장
朴世熙	59년	文理大卒	모교 자연대 교수
林采柱	59년	商大卒	국세청장
曹章煥	60년	農大卒	단국대 총장
金圭甲	61년	工大卒	협성실업 대표
金元世	61년	農大卒	현대금속 회장
林炯斗	61년	文理大卒	SBS제작본부장
孔魯明	61년	法大卒	前외무부장관
李顯求	61년	法大卒	국회 도서관장
金義在	62년	法大卒	국가보훈처 차장
鄭址炯	62년	法大卒	서울고등법원장
姜洙憲	62년	商大卒	대동벽지 대표
裴茂基	62년	商大卒	중앙노동위 위원장
沈載德	63년	農大卒	수원시장
李東和	63년	文理大卒	서울신문 주필
李明海	63년	文理大卒	감사원 사무총장
文鍾洙	63년	法大卒	대통령민정수석
黃善杓	63년	法大卒	한국언론연구원장
姜 寬	64년	工大卒	코오롱유화 사장

韓大林	64년	工大卒	서전통상 사장
金基錫	64년	法大卒	前법제처장
李海揆	64년	法大卒	삼성중공업 대표
徐 晟	64년	法大卒	대법원 대법관
宋宗義	64년	法大卒	법제처장
李年憲	65년	文理大卒	MBC제작이사
崔 桓	65년	文理大卒	대전고검장
安繁一	65년	法大卒	감사원 감사위원
李武龍	65년	法大卒	근화제약 대표
李千洙	65년	法大卒	순천향대 총장
朱光逸	65년	法大卒	서울고검장
金鍾奭	65년	獸醫大卒	국립환경연구원장
金東泰	66년	農大卒	농업진흥청장
尹瑞成	66년	法大卒	환경부차관
趙健鎬	66년	法大卒	총리 비서실장
李忠雨	66년	商大卒	벽산화학 대표
全鎔秀	66년	商大卒	인하대 부총장
張日武	66년	藥大卒	모교 교수
池英一	66년	醫大卒	신일병원장
金鐵壽	67년	農大卒	상주산업대 총장
宋寅準	67년	法大卒	대검 강력부장
張昌浩	67년	法大卒	변호사
元正一	67년	法大卒	법무부차관
李源性	67년	司大院卒	대검찰청 차장
吳啓煥	68년	工大卒	현대전자 부사장

金炳日	64년	文理大入	통계청장
金昇圭	68년	法大卒	대전고검 차장
朴舜用	68년	法大卒	대검중수부장
鄭海洙	68년	法大卒	중소기업청장
李根植	68년	法大卒	내무부차관
姜萬洙	69년	法大卒	재정경제원 차관
韓光洙	69년	法大卒	제주지검장
李永鐸	69년	商大卒	총리 행정실장
金煥淙	70년	經大院卒	우영산업 회장
俞炳武	71년	商大卒	범양상선 대표
韓應洙	71년	商大卒	통상산업부차관
朴重培	71년	行大院卒	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黃活雄	72년	法大卒	부산경찰청장
金鍾民	72년	法大卒	문체부차관
李世震	73년	法大卒	총동창회 사무총장
盧在成	73년	行大院卒	대통령홍보비서관
李大淳	73년	新大院卒	호남대 총장
安炳燦	75년	新大院卒	경원대 신방과교수
金炳斗	77년	工大卒	한국HP상무
文國現	77년	經大院卒	유함김벌리 사장
朴相烈	79년	法大卒	변호사
沈甲輔	3기	AMP	삼익물산 회장
金光石	37기	AMP	대통령경호실장
禹 誠	21기	ACAD	노동부차관
尹相哲	61년	文理大卒	교보생명 이사

혼수를 장만하느라 빚을 진 50대 가정이 둘째 딸을 시집보내기 전날 밤 생활고를 비판하며 투신자살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딸만 셋을 둔 그 아버지는 첫 딸 시집보낼 때를 생각하며 이번에도 무리를 했던 모양이다. 돈많은 줄부들이야 별일 아닐지 모르나 혼인 적령기 자녀들 둔 부모들에게는 결코 남의 일 같지 않은 비극이다.

한국에선 기둥뿌리 뽑힐 정도

우리나라 연간 혼례비용은 재작년의 경우 25조3천 억원으로 GNP의 6.5%에 달했다는 보건복지부의 통계다. 한 쌍당 평균 비용은 양가를 합쳐 7천5백만원으로 일본의 3.2배, 미국의 4.8배, 영국과 비교하면 무려 6.8배라고 한다. 아무리 남의 이목이 중요하고 과시욕에 눈이 멀었다 해도 서민들로서는 허리가 휘고 기둥뿌리가 뽑히는 혼수비가 아닐 수 없다.

런던에서 발간되는 월간잡지 「결혼과 가정」에는 얼마전 이런 기사가 실렸다. 전국 샘플조사결과 영국의 젊은이들은 평균 1년간의 약혼기간을 거쳐, 주로 여름철 교회에서 3명의 신부들러리와 1명의 시동을 거느리고, 가족 친지 등 평균 1백5명의 하객이 모인 가운데 혼례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혼



南 仲 九

동아일보 논설위원실장

혼수없는 영국결혼식

례비용은 약혼 예물 신혼여행경비까지 합쳐 한쌍 평균 7천3백59파운드(약 1천1백만원). 신랑 신부 양가로 나누면 각각 5백50만원씩을 부담하는 셈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예물항목이다.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양가에서 지출하는 평균 예물대는 신부 약혼반지 66만원, 신부 결혼금반지 17만6천원, 신랑 결혼금반지 15만4천원 등 통틀어 3개 품목에 도

합 99만원 뿐이다.

우리처럼 값비싼 패물이나 예단도 없고 바리바리 실어 나르는 가전제품, 고급가구 등 살림살이 따위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영국인들의 혼인 경비 지출난에 혼수항목 같은 것은 아예 처음부터 들어있지도 않은 것이다.

혼례비 과다지출 폐습 버려야

필자가 보기에 그 정도면 딸가진 영국의 부모들도 큰 부담은 아니겠구나 싶는데 이같은 기사가 문제의 잡지에 실리자 런던의 신문들은 호화결혼 풍조라며 호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결혼 한번 하는데 소형 자동차 한대값씩을 날리다니 이 무슨 허례허식이며 낭비냐는 것이다.

분에 넘치는 혼례비 과다지출이 버리고 가야할 생활폐습 제1호라는 데는 모두가 같은 생각이다. 공감하고 개탄하는 목소리들은 높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당사자가 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어쩔수 없이 똑같은 폐습의 노예가 되고만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른 것들은 곧 잘 외국풍습을 내면서도 혼수없는 나라의 좋은 풍습은 왜 못 배우는지 모르겠다.

(본보 논설위원)

주 문 필 필

<입장>과 <처지>

李翺燮(60년 文理大卒)국립국어연구원장

「立場」이 일본어의 잔재라 하여 쓰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處地」라는 단어로 훌륭히 대체되는데 무엇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과거를 가진 단어를 살려 두느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각각의 쓰임새 달라

그런데 과연 「입장」과 「처지」는 그 의미와 쓰임이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판단인 듯하다. 사실 의미에 별 손상을 입히지 않고 「입장」을 「처지」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도 많으나 그

러지 못한 경우도 꽤 있다.

한 예로 「그들은 대부분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라고 할 때 「반대의 처지를 취하였다」라고 할 수는 없다. 「처지」가 수동적인 일과 연관되는 쓰임을 보인다면 「입장」은 그에 비해 능동적인 일과 연관되는 쓰임을 갖는 듯이 보인다. 어쨌든 두 단어는 각자의 세계를 따로 가지고 있다. 「가이단」을 버리고 「계단」을 써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나 「입장」을 버리면 그 빈자리를 채울 길이 마땅히 없어 보인다.

말의 맛이란 묘하다. 「에」해

다르고 「애」해 다르다는 속담이 그래서 생겼을 것이다.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되면 그만일 듯싶은데 사람들은 미묘하기 이를 데 없는 意味差까지 구별하려 하고 섬세한 감정까지 담으려 한다. 이는 음식의 경우와 흡사한 것이 아닌가 한다. 배부르고 영양만 충분히 취하면 그만일 것 같지만 우리의 입맛은 얼마나 까다로운가.

年前에 친구를 잃고 수첩에 그 일을 기록해 넣으려니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한참 애를 먹은 적이 있다. 「사망, 사거, 서거, 작고, 별세, 운명, 타



대다수 국민이 저항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을 외래어라 하여 배척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들도 우리의 김치를 들여가면서 「김치(kimchi)」 또는 「기무치」라는 단어까지 들여가고 있다. 학자들 사이지만 「한글(Hangul)」도 이제 상당히 넓게 퍼졌다. 언젠가는 「멋」이니 「恨」이니 「판소리」이니 「씨름」이니 하는 단어, 나아가서는 「오손도손」이니 「알뜰살뜰」이니 하는 맛깔스러운 단어들까지도 들여갈지 모른다.

현재로서는 수출 수입의 불균형이 너무 크고, 우리 것으로 충족됨에도 마구잡이로 외국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무분별한 행동이 횡행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는 하나, 서로 주고 받으며 풍요로운 세계를 만들어 간다면 그 아니 좋겠는가.

계」 등 해당 단어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때의 내 悲感까지를 감싸주는 단어는 찾아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永眠」을 찾아냈다. 그것이 그 중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 참으로 「에」해 다르고 「애」해 다른 것이다.

외래어 배척 말아야

외래어로써 우리말의 어느 빈 구석이 채워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외래어에 교양 있는

국내 최대의 사무용 가구업체

자체 디자인 개발로 살아있는 사무환경 창조

자투리 재활용·폐기물 최소화 등 공해 방지에도 심혈



⑩ (주)퍼시스

『살아있는 사무환경을 창조합니다』

(주)퍼시스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무실」, 「조직이 살아있는 사무실」, 「능률이 살아있는 사무실」을 자체 디자인·기술·힘으로 창조하려는 기업정신을 오늘도 발휘하고 있다.

사무실에 PC가 보급되고 사무효율화 증대가 요청됨에 따라 지난 83년 金永喆(63년 工大卒·퍼시스 회장)동문은 한샘공업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95년 상호를 퍼시스로 개칭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대의 사무용가구 업체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한 權東烈(63년 法大卒)동문은 「정도 경영」, 「투명 경영」, 「전문 경영」을 표방하며 인재에 대한 믿음을 기반한 인사관리와 합리적 경영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權동문은 「사업가는 사업을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앞서기 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재무구조를 우량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한다.

많은 기업들이 「헛장사」를 하거나 빚 때문에 쓰러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유지하는 이유는 한 우물을 파는데 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사무가구 단일 품목으로 매출액 1천억원을 돌파했으며 100% 자기 상표 수출 전략에 따라 우리 고유

브랜드인 「FURSIS」(FURNITURE와 SYSTEM의 합성어)를 가지고 86년 처음 수출을 시작한 이래 88년 1백만불탑, 92년 5백만불탑, 94년 1천만불탑을 수상했고 97년 목표는 세계 30여개국을 상대로 2천만불 수출이다.

낮은 부채 비율과 70% 이상의 자기 자본 비율로 탄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지난해 한국능률협회가 5백94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성장성, 수익성, 규모 및 활동성 등 4개 부문의 평점을 종합해 선정한 중형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92년 이후 기업신용평가에서 6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인 A1 등급을 받는 등 퍼시스는 외형적 성장과 함께 내적으로 더욱 튼튼한 회사다.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제품개발, 직원교육, 고객지원, 대리점 운영지원, 디자인 개발에는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실에는 회의용 테이블만 있을 뿐 응접 소파도 없고 카펫도 깔려 있지 않지만 기술투자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權동문.

사무실을 포함한 사무환경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개념과 디자인, 소재, 그리고 신기술 등에 대한 투자로 기술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 퍼시스는 86년 유로테크시리즈로 당시 획일적인 철제 일변도의 업계에 「백색가구」의 새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89년 업계 최초로 「가구연구소」를 설립한 후 기술개발은 더욱 가속화돼 93년 탐라인시리즈와 의자 프록스시리즈, 96년에는 적층구조의 철제파티션인 액티플랜, 중역용 가구인 프레지던트 클래식, 올해는 곡선형 디자인에 복합소



權東烈사장

재를 적용시킨 퍼즐시리즈를 개발했다.

퍼즐시리즈는 각 용도에 적합한 독립 가구들을 총체적 개념에 의한 모듈화된 유니트들로 구성하여 가변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환경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고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컴퓨터환경에 적합하도록 개발됐다.

『기업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제품개발에만 그쳐서는 안됩니다. 좋은 제품과 함께 좋은 환경을 스스로 지키고 보존하여 모든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權동문은 회사의 모든 부문에서 환경을 먼저 생각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원부자재에 대해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등 여러 가지 공해 방지 설비에 집중 투자하여 환경 보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이 인간에 봉사하는 사회」를 목표로 방만한 사업다양화 보다는 전문화를 지향, 좋은 제품, 좋은 회사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는 퍼시스는 신제품 「퍼즐」 출시와 지난달 안성 제2공장 준공을 계기로 세계 최고의 사무가구 업체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했다. <元>



〈11면에 계속〉

(10면에 이어)

▲李殷雨(65년 工大卒·삼천리 기계 대표)=최근 삼천리기계와 삼천리주택이 합병돼 새롭게 출범한 삼천리M&C의 공동대표이사에 陳柱華(77년 商大卒·삼천리주택 사장)등문과 함께 선임됨.

▲鄭文和(65년 法大卒·前부산 시장)=최근 한국행정연구원 제3대 원장에 선임됨.

▲柳俊馨(66년 法大卒·前함남 도민회 부회장)=최근 함경남도 도지사에게 임명됨.

▲韓一成(66년 法大卒·두산음료 사장)=최근 OB맥주와 두산음료의 합병을 앞두고 두산상사 대표이사에 선임됨.

▲柳寬熙(67년 農大卒·모교 교수)=최근 모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무담당 부학장에 선임됨.

▲崔相琦(68년 法大卒·前삼익 대표이사)=최근 청정 환경플랜트업체인 정일이엔씨의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金盛洙(68년 獸醫大卒·축산업협동조합)=최근 장성 축산업 협동조합 조합장에 취임함.

▲宋泰準(71년 文理大卒·통계청 통계연수원장)=최근 한국 신용평가(주)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姜雲太(72년 文理大卒·前내무부장관)=최근 조선대 중소기업대학원 초빙교수에 선임됨.

▲白基文(73년 文理大卒·駐가나대사)=지난 10월 4일 시드니 총영사에 임명됨.

▲朴春植(78년 醫大卒·순천향대교수)=최근 97년 선도기술(G7) 의료공학기술개발사업 대상자로 선정됨.

▲李泰旭(78년 師大卒·한국교원대 교수)=최근 컴퓨터교육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됨.

▲張京順(87년 工大卒·조달청 사무관)=최근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조달청 시설서기관으로 승진함.

▲劉度在(1기 AMP·前청와대 총무수석)=최근 「21세기 국가 발전 및 남북관계」를 연구하

기 위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선임연구위원에 초빙됨.

▲李鍾大(2기 AMP·한국제지공업연합 회장)=지난 10월 2일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제지인들의 최고 영예인 「제지산업 명예의 전당(PIHF)」헌정자로 선정됨.

행사·출간

▲高柄翊(47년 文理大卒·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장)=최근 문화유산답사 안내서인 「문화유산을 찾아서」를 발간함.

▲申東憲(49년 工大卒·만화가)=최근 클래식 음악의 역사를 알기쉽게 풀어 쓴 「재미있는 음악사이야기」(서울미디어)를 출간함.

▲金相廈(49년 文理大卒·대한상공회의소 회장·本會副會長)=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사장에 임명됨.

▲趙永植(50년 法大卒·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장)=지난 10월 6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제16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및 남북이산가족 재회 촉구대회를 가짐.

▲李榮德(52년 師大卒·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지난 10월 17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대강당에서 「세종시대 문화의 현대적 의미」를 주제로 세종대왕 탄신 6백주년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함.

▲朴晟容(50년 文理大入·금호문화재단이사장·本會副會長)=지난 10월 21일 금호미술관에서 「초현실주의의 거장 호앙 미로전」 개막식을 가짐.

▲閔斗基(55년 文理大卒·모교교수)=최근 학술논문집 「중국 초기 혁명운동의 연구」(서울대출판부)를 출간함.

▲李弘和(56년 農大卒·한국농림수산과학 협회장)=최근 올림픽과 크텔에서 세계적인 과학자들을 초청,

「작물과 가족의 분자유전학 및 육종」을 주제로 농업과학 국제

학술발표회를 개최함.

▲閔丙峻(56년 師大卒·한국광고주협회장·師大同窓會長)=지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4차 세계광고주대회에 참석함.

▲李世中(57년 法大卒·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지난 10월 24일 백상기념관에서 한국환경센터 건립기금 마련 유명작가 초대전을 개최함.

▲咸正鎬(57년 法大卒·대한변호사협회장)=지난 10월 13일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연수원 개원식을 가

짐.

▲徐延旭(57년 工大卒·SK텔레콤 사장)=최근 베트남 하노이 공대에서 저서인 「미래를 열어온 사람들-통신과 함께 걸어온 길」을 소개함.

▲黃哲益(57년 音大卒·건국대 교수)=지난 10월 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종교적인 소재를 담아 작곡한 작품발표회를 가짐.

▲金鎮炫(58년 文理大卒·서울시립대총장)=최근 대학본관 대회의실에서 장비분야 거점연구단(단장 朴善宇) 발족식을 가짐.

▲金昌悅(58년 法大卒·방송위원회 위원장·本報論說委員)=광주 호남대에서 열린 제3회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참석, 「아시아 초다채널 국제위성 TV의 가능성과 미디어정책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함.

▲李升煥(59년 法大卒·한국국제협력단 부총재)=지난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국제협력

진흥협회 제4차 심포지엄에 참석, 도시환경과 관련하여 강연함.

▲韓萬靑(59년 醫大卒·대한패스학회 회장)=최근 삼성서울병원에서 영상진료시스템 연구개발분야학

자들이 참여한 「97 IMAC 국제 PACS학회」를 개최함.

▲金允植(59년 師大卒·모교교수)=최근 90년대 한국근대문학 연구동향과 여러가지 문예기법의 측면에서 본 「발견으로서의 현대문학사」(서울대출판부)를 펴냄.

▲宋復(60년 文理大卒·연세대 교수)=최근 서울갤러리에서 부인 河慶姬(배화여전 교수)씨와 함께 논어의 글귀 1백여 구절을 적은 작품을 모아 논어서예전을 가짐.

▲李正統(60년 醫大卒·인하대병원장)=최근 경인지역 개원의를 위한 제1회 소화기내과 집담회를 개최함.

▲張水榮(61년 工大卒·포항공대 총장)=최근 포항공대에서 한국-중국-대만-일본 등 4개국 16개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동아시아 연구중심대학 총장협의회(AEARU)총회에서 제2대 회장에 선출됨.

▲趙庚穆(61년 工大卒·한국케이블TV협회 회장)=최근 힐튼 호텔에서 李龍兌두루넷회장을 초청, 「우리나라 정보화전략과

케이블TV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함.

▲姜賢旭(61년 文理大卒·국회의원)=지난 15일 전북대 개교 50주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음.

▲曹圭淵(62년 家政大卒)=최근 동문 및 동문 자녀의 결혼 상담을 무료로 펼치고 있음. 연락처: 993-0008

▲李光榮(62년 文理大卒·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지난 11월 1일 중앙대학교에서 「차기정부의 사회복지

지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12면에 계속)

한국공연예술진흥협회의

초대 위원장에 徐基源등문



지난 10월 11일 공연윤리위원회 대신 새롭게 발족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회의(약칭 공진협) 초대위원장에 徐基源(48년 商大入·前KBS사

장)등문(사진)이 선임됐다.

또한 金尙植(61년 文理大卒·前공무원위원장)등문이 공진협 사무총장에 임명됐으며 洪性裕(48년 法大入·소설가), 鄭命澤(64년 法大卒·변호사), 朴明珍(69년 文理大卒·모교교수), 金文朝(72년 文理大卒·고려대교수)등문이 위원에 임명돼 외국영화의 수입 추천과 영화 상영 등급 부여 등의 업무를 맡게 됐다.

연변대 객좌교수로 위촉

金潤澤등문



최근 양천장학회 이사장 金潤澤(70년 經大院卒)등문은 길림성 연변대학교에서 「21세기를 앞둔 동북아 주변정세-한반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지난 94년부터 중국 길림성 동북사범대학과 연변대학 출신자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온 것과 외무부 산하 민간외

교단체인 북방권교류협회의 수석부총재로 한중학술교류에 적극 참여한 것이 인연이 돼 지난해 말 연변대학교 객좌교수로 위촉되고 97년도 신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 특강을 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金潤澤은 지상강의 등을 통해 조선역사에 관해 널리 알릴 예정이다. (元)

(11면에 이어)

▲金光雄(62년 法大卒·한국공공정책학회 회장)=최근 모교 호암교수회관에서 「바람직한 정부를 만들어 보자」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李承院(62년 法大卒·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지난 10월 7일 KBS홀에서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 등 약 2천여명을 초청, 「97 다시 서는 사람들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함.

▲柳錫烈(62년 師大卒·동아시아연구회 회장)=지난 10월 15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張瓊燮경수로사업지원기화단장을 초청, 「북한 경수로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任德淳(62년 師大卒·충북대 교수)=최근 보완 개정된 「정치지리학 원리」 제2판(법문사)을 출간함.

▲車鳳禧(63년 文理大卒·한신대 교수)=최근 10월 8일 금호미술관에서 소설 「美愛의 여행」 출판기념회를 가짐.

▲陳 稔(63년 商大卒·前노동부장관)=지난 10월 15일 전북대 개교 50주년 기념식에서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음.

▲金學世(63년 法大卒·변호사)=최근 기업관련 전문법률회사

인 법무법인 삼정의 대표 변호사로 개소함.(주소:종로구 수송동 80-6 석탄회관 10층 전화:725-4774)

▲李炯均(64년 文理大卒·한국프레스센터 전문·本報論說委員)=중국 河北省정부의 초청으로 지난 10월 26일부터 1주일간 하북성과 북경을 방문, 언론계 및 산업시설을 시찰함.

▲嚴泰丁(64년 美大卒·모교 교수)=최근 서울 갤러리현대에서 청동·황동판 등 재료의 자연미를 살린 개인 조각 전시회를 가짐.

▲金亨圭(64년 音大卒·한양대 교수)=지난 10월 17일 서울 금호미술관에서 열린 금연콘서트에 출연, 모차르트 소나타 「K570」 등을 연주함.

▲高濬渙(65년 法大卒·경기대 교수)=최근 禪을 주제로 한 동화소설 「곰뱅이의 꿈 매미의 노래」(밀알)를 펴냄.

▲申秀喜(66년 美大卒·화가)=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청담동 원화랑에서 10번째 개인전을 개최함.

▲李祥義(66년 藥大卒·국회의원·本會副會長)=지난 10월 20일 국회 도서관에서 저서 「과학원 괴짜들」, 「이제 미래를 이야기 합시다」, 「21세기 대통령감이 읽어

야 할 책」 등 3권에 대한 출판기념회를 가짐.

▲楊秀吉(67년 工大卒·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최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제12차 총회에 참석,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함.

▲韓大熙(67년 醫大卒·모교 교수)=최근 오사카에서 개최된 일본신경외과학회에 참석, 「뇌동맥벽 기형

의 수술적 경험과 한국 신경외과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특강함.

▲鄭東俊(67년 行大院卒·한국인사관리자협회 회장)=지난 10월 13일 인사관리회관에서 고급 인사관리 강좌를 개최하고 「컴파넨시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함.

▲鄭連姬(68년 美大卒·在美화가)=지난 10월 19일까지 서울 박영덕화랑에서 평면작업과 우주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천장설치작업을 선보임.

▲柳福模(69년 工大卒·대한토목학회 회장)=최근 수원 경기대에서 前일본토목학회 회장 미노루 마츠오씨를 초청해 국제 학술발표회를 개최함.

▲金基協(72년 文理大卒·前계명대 교수)=최근 조선 개국과정을 웅대한 서사시로 읊은 「용비어천가」(들녘)를 펴냄.

▲朴杉沃(72년 文理大卒·한국지역학회 회장)=지난 10월 10일, 11일 양일간 울산대 본관 강당에서 「21세기를 향한 울산시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金泰勳(72년 法大卒·서울지법 부장판사)=최근 중구 순화동 1-170 법무법인 「世宗」에서 변호사사무실(전화:316-4266)을 개소하고, 「국제거래·상사소송의 실무」를 펴냄.

▲黃佑權(72년 新大院卒·대진대 교수)=최근 삼성언론재단과 성균관대 언론대학원 주최의 편집부장단 세미나에서 「신문가로짜기와 CTS제작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함.

▲金雅暎(74년 美大卒·화가)=



지난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동산방갈러리에서 생활주변의 풍경들을 추상적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들로 개인전을 가짐.

▲元容福(75년 法大卒·서울고검형사부장)=최근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함.(주소:영등포구 문래동4가 8-9 3층 전화:638-0100)

▲金千一(79년 美大卒·목포대 교수)=최근 서울 금호미술관,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四季」를 주제로 전시회를 가짐.

▲吳在寅(80년 經營大卒·단국대 교수)=최근 「21세기를 대비한 경영정보학 분야의 패러다임 정립」이란 주제로 단국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의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함.

▲朴用根(80년 法大卒·변호사)=최근 록과 발라드 계열의 10곡을 수록한 음반을 취입, 가수로서 데뷔함.

▲玄純伊(81년 音大卒·단국대 교수)=지난 11월 11일 예술의 전당에서 바이올린 독주회를 가짐.

▲蔡仁英(82년 醫大卒·신경정신과 원장)=최근 병원을 이전함.(주소:서초구 방배1동 924-13 청림빌딩3층, 전화:522-7575)

▲李恩淑(85년 美大卒·在美화가)=지난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금호미술관에서 작품 「복제된 소」 등으로 두번째 개인전을 가짐.

▲溫亨根(86년 農大卒·여주자연농교사)=97년 「오늘의 문학」 가을호에 시 「발독으로 봄이 왔어요」 외 4편으로 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등단함.

▲朴相禧(86년 美大卒·조각가)=지난 10월 15일에서 28일까지 원서갤러리에서 「사물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세번째 개인전을 가짐.

▲任美貞(88년 音大卒·재미 피아니스트)=지난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산 안토니오에서 열린 「산 안토니오 국제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로 입상, 1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으며 내년 시즌의 오케스트라 협연 및 독주회 등의 연주계약

을 맺음.

▲金遺腹(4기 ACAD·국제로타리 서울지구 총재)=지난 10월 14일 KBS홀에서 북한동포 돕기 열린음악회를 주최함.

(정리=盧志元기자)



華 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족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서강일 군(91년 工大卒)·유은성 양=11월 15일 12시 30분.

*최성수 군(96년 人文大卒)·권선경 양=11월 15일 15시 30분.

*김종화 군(94년 自然大卒)·변은명 양=11월 16일 12시 30분.

*백남철 군(94년 環大院卒)·최혜경 양=11월 16일 14시.

*허진석 군(94년 自然大卒)·김선아 양=11월 16일 15시 30분.

*함탁정 군(88년 農大卒)·장은정 양=11월 21일 13시.

*강태욱 군(94년 師大卒)·노상에 양=11월 22일 11시.

*최병엽 군(92년 自然大卒)·김현숙 양=11월 22일 12시 30분.

*이재욱 군(96년 工大卒)·김영화 양=11월 22일 14시.

*구태훈 군(95년 農生大卒)·임소연 양=11월 22일 15시 30분.

*김윤식 군(94년 農生大卒)·정세희 양=11월 23일 12시 30분.

*김종필 군(95년 師大卒)·고은자 양=11월 23일 14시.

*차익중 군(84년 人文大卒)·민은홍 양=11월 29일 12시 30분.

*이상우 군(90 師大卒)·심지현 양=11월 29일 14시.

*황인문 군(92년 農大卒)·장희정 양=11월 30일 12시 30분.

*김성길 군(96년 農生大入)·백설애 양=11월 30일 14시.

*황준하 군(87년 人文大卒)·김영옥 양=12월 6일 12시 30분.

*박준동 군(95년 社會大卒)·권수경 양=12월 6일 14시.

*이용철 군(89년 師大卒)·김정은 양=12월 6일 15시 30분.

*김용진 군(95년 師大卒)·손영미 양=12월 7일 14시.

SBS문화재단 尹世榮회장

4개 공익사업에 지원금 전해



李相喜환경생태계연구협회장, 吳仁煥방송학회 회장, 丁世鉉 민족통일연구원장, 尹 이사장, 金 坵해양연구소장, 尹赫基SBS사장.

SBS문화재단 이사장 尹世榮(61년 法大卒)동문은 지난 10월 14일 SBS본사에서 97년도 지원사업 중 4개분야(방송관련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지원사업, 통일연구사회발전 지원사업, 환경보전사업 연구 부문/실천운동부문)에 대한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한국방송학회, 민족통일연구원, 서울대학교 해양연

구소,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가 각각 지원증서와 지원금을 받았다.

서울방송이 방송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의 일부를 국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93년 10월에 설립된 SBS문화재단은 기금 운용수입으로 올해 18개 사업에 총 1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올바른 정서·인격 형성에 헌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權赫昇 위원장

權赫昇(57년 商大卒)동문이 지난 7월 25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법정기구로 발족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 95년 2월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던 權동문은 재임기간 동안 간행물의 윤리 향상과 출판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청소년보호법 제정과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를 법정기구로 발족시키는데 힘쓴 공로가 인정돼 재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간행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權동문을 만나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간윤의 업무는.

『27년의 역사를 지닌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음란·폭력성 등 유해간행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출판윤리의 향상을 위해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제반 간행물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와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이밖에 양서권장사업으로 「서평문화」(계간)와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집」(반년간)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 간윤의 구성은.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크게 「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구성됩니다. 20인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문체부 장관이 공보처 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합니다. 각 10인 이내로 구성되는 3개 심의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합니다. 이밖에 양서권장사업을 위해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평위원회가 있습니다』

- 간윤의 심의는.

『청소년보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제반 간행물을 심의하여 청소년

유해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간행물의 내용이 선정적이거나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은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결정하여 해당 간행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청소년 유해간행물은 법에 따라 「18세미만 구독불가」라는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고 포장 판매해야 합니다』

- 최근의 활동은.

『심의업무외에 청소년 유해간행물 모니터 회원의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일선교사, 학부모, 청소년·여성·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된 24명의 모니터 회원이 도서·잡지, 국내만화, 외국만화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청소년 대상 간행물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지난 4월부터는 청소년 유해간행물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과 시민들의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PC통신 천리안 매직콜에 청소년 유해간행물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의 인기



를 모으고 있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심의기구를 설치, 유해전자출판물 추방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1년에 4차례 전국 대도시를 돌며 청소년 독서지도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간윤의 활동을 통해 얻은 보람과 앞으로 계획은.

『지난 3년간 간행물심의를 지켜보면서 청소년 대상 간행물의 음란·폭력성 정도가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미력이나마 장차 나라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간행물로부터 보호받아 건전한 인격을 갖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법정기구의 위상에 걸맞게 청소년에게 유해한 간행물을 척결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 동문활동은.

『지난해 商大 11회가 중심이 되어 「서울상대 기우회」를 조직하고 제1회 바둑대회를 열었습니다. 저도 상대동창 바둑대회를 발족시키는 산파역할을 했습니다』

- 취미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터득한 것이 「三自論」입니다. 自然이 있고, 自由가 있고, 自身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산의 철학」을 산에 오를 때마다 깨닫습니다. 숨이 찬 모습으로 산을 오를 때마다 살아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산을 걷는 것은 인생을 걷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雙)



지난 4월 부정방지대책위원회(이하 부방위) 위원장에 취임한 후 여러 방면에서 바르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權泰塿(62년 法大卒·모교 교수)동문을 만나 그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 보았다.

- 「부방위」를 소개하면.

『「부방위」는 감사원장 자문기구로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李世中변호사, 徐英勳선생에 이어 3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위원들은 당연직 위원인 감사원 감사위원들과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방

위」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도를 선정,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된 보고서를 검토·심의하여 감사원장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아직 수사권, 의결권도 없지만 사회에 부정·부패의 소지가 높은 부문을 지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것만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동안의 활동은.

『「부방위」에서 그동안 제기한 문제는 많지만 최근 발표한 것은 공직자 재산등록제에서 신고자가 재산 액수만 등록하는 것은 자의적 신고가 되기

쉬운 문제가 있어 재산 목록, 재산의 취득 방법과 시기, 자금원을 명기토록 하여 재산 형성 과정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교수 임용에 있어서 교육부 산하에 대학교수 공정임용 심사위원회를 설치, 대학교수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기업 접대비에서 접대비·기밀비를 인정해주고 있는 법인세법의 손비인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촌지에 대한 특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첫째, 말단부터 고위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비리가 만연해 있고 뿌리가 깊어 한 두 사람 처벌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마음은 전통적인 순박한 인심을 가지고 있는데 행동은 합리적 일처리를 요구

해 부조화가 발생하는 등 공사준별 의식이 확고하지 못하다는 것 셋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생각이 사회 전체에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급격한 개혁은 실패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문민정부의 개혁 정신은 높이 사야겠지만 초기 개혁이 만연된 부패 관행에 굴복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에게 합리적인 사고와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법과 제도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 유네스코에서의 활동은.

『지난해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훈민정음(국보 제70호)과 조선왕조실록(국보 151호)이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등재되고, 한국이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 이사국에 선출되는 쾌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네

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국제적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초·중·고교학생에게 국제 이해 교육과 함께 외국인이 쉽게 한국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 서울대인에게 한말씀.

『서울대인이 특별히 도덕적이라는 증거를 대려면 없어요. 또 팔이 안으로 굽어서 하는 이야기일지 모르나 모교출신이 공직에 있건 사직에 있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自重自愛하는 사람은 매사에 조심하는 개연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습니다. 서울대인이 일반적으로 명예를 소중히 여겨 조심하리라는 기대는 하지만 각계에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많아 수적으로 따지면 부정에 연루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모교출신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도적 위치에서 본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元)

사회 부정부패 소지 없애고 경각심 높여

부정방지대책위원회 權泰塿 위원장

본회 및 관악회 상임이사회 「서울대총동창회상」제정안 심의



본회(회장 金在淳)는 지난 10월 20일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동창회 제136차 및 관악회 제7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金在淳회장, 鄭宗澤상임부회장을 비롯해 본회 河永基, 金相廈, 姜信浩, 李聖秀, 金許男, 閔丙峻, 趙南煜, 李相禹, 玄昭煥, 崔元榮부회장, 재단법인 관악회 金道昶, 白文基, 尹美子, 尹永錫, 崔鉉烈이사, 상임이사 중 李義淑가정대동창회장, 宋美順간호대동창회 상임이사, 鄭哲圭공대동창회장, 李信子미대동창회장, 張禮準상대동창회장, 李禮植약대동창회장, 辛慶昱음대동창회 부회장, 金讚淑치대동창회장, 李光魯대학원동창회장, 孔大植경영대학원동창회장, 千柄植교육대학원동창회 부회장, 李濟薰신문대학원동창회장, 全秀信최고경영자과정동

창회 간사장, 崔在英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장, 본보 孫一根, 朴世熙, 李炯均, 丘月煥논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李世震사무총장의 등산대회 준비사항 보고에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 참석자들은 「서울대학교총동창회상」 제정안을 심의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시상내역 등을 보장해 98년 3월 정기총회에 상정, 의결을 거친 후 99년 3월 정기총회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제정될 「서울대학교총동창회상」은 모교 및 동창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것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에 공헌함으로써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 또는 단체에 시상함으로써 서울대인의 귀감으로 삼게 될 것이다.

하트랜드 지부

초대 회장에 李校洛동문 선출

미국 중서부 Heartland지역(Nebraska, Iowa, Kansas, Missouri, Oklahoma, Arkansas)에 거주하는 동문들이 지난 10월 11일 캔사스시에 있는 Doubletree 호텔에서 하트랜드지부동창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오후 7시부터 열린 총회에서 임원선출을 통해 초대 회장에 李校洛(59년 醫大卒)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수석부회장에 金好元(56년 齒大卒)동문을 선임했다.

또한 총무담당에 裴圭台(65년 商大卒)동문, 재무담당에 吳桂淑(63년 美大卒)동문, 섭의 및 홍보담당에 裴圭永(75년 師大卒)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초대 李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동문간의 친목 도모는 물론 한인사회의 복지 향

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하고 『한인학교 학생이나 상록회의 노인복지 등을 후원하기 위해 그동안 준비위원들의 기부금을 받아 1천2백달러의 기금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뉴욕 지부

尹회장 본회 방문해 현황 설명



뉴욕지부동창회 尹延玉회장



수의과대학

개교 50주년 기념행사 펼쳐

獸醫科大學同窓會(회장 尹志炳)는 지난 10월 3일 모교 수원 캠퍼스에서 개교 50주년 축하 및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同會는 吳昌泳(53년卒·서울대공원 연구원)동문에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을 수여하고 정년 퇴임한 崔熙仁, 徐鈺洙

교수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마련한 장학재단 헌판식이 있었으며 50주년 기념 마라톤대회와 노래자랑을 통해 동문간의 우의를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약학대학

「동창의 날」 행사 성황리에



藥學大學同窓會(회장 李禮植)는 지난 10월 12일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잔디밭에서 5백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동창의 날 홈커밍데이」를 가졌다.

이날 대회는 응원전을 위시하여 거북이 마라톤, 탱크 릴레

이, 돼지 물이, 공주님 모시기, 왕발 달리기 등 다채로운 경기가 펼쳐지고 매 경기 중간중간에 결집인 행운권 추첨은 흥을 돋우었다.

이순 테니스회

제23회 대회 개최

耳順테니스회(회장 馬景錫)는 지난 10월 3일 모교 교수테니스장에서 4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제23회 대회를 개최했다.

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람』이라며 『테니스를 통해 건강하게 일하고 노익장을 간직하자』고 강조했다.

대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古稀조 우승: 金泰吉·馬景錫, 준우승: 鄭萬永·崔妍嬋, 3등: 金明煥·李泰浩동문

△耳順A조 우승: 李炳允·金衡泰, 준우승: 金有燾·沈載錫, 3등: 秋憲出·全兢烈동문

△耳順B조 우승: 李存熙·金東光, 준우승: 姜鍾基·趙東三, 3등: 金善吉·李文炯동문

다음 제24회 대회는 98년 4월 5일 열릴 예정이다.

교수 테니스회

야간 조명장치 지원

교수테니스회(회장 梁喆學)는 지난 10월 11일 모교 교수테니스장에서 5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추계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A조 우승: 鄭相俊(영문학과)·吳洙亨(중문학과), 준우승: 申仁湜(체육교육과), 高光浩(약학과)동문

△B조 우승: 李泰振(제약학과)·高哲煥(해양학과), 준우승: 鄭哲秀(체육교육과)·韓奎淑(철학과)동문

대회 종료후 朴聖炫학생처장과 梁회장은 테니스코트 라이트 점등식을 가졌고 이어 불고기 파티를 하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元)

「포켓용 DIARY」 11월 중순 배포



본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급가족으로 양장제본하고 금박과 금장을 입힌 「포켓용 DIARY(8X17.2cm)」를 제작, 보내드립니다.

사용할 때마다 동문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동창회 DIARY는, 모교 발전과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연회비를 납부해 주신 동문(이사, 일반 포함) 여러분께 11월 중순부터 우송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동창회를 사랑해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총동창회사무처

서울대 트리비아

Q6. 모교의 제1회 졸업식이 거행된 것은 언제일까요?

Q7. 현재 모교에서 발행되고 있는 「대학신문」은 언제 창간되었을까요?

A. 1947년 7월 11일 / 1952년 2월 4일

(사진)이 지난 10월 24일 본회를 방문, 李世震사무총장과 한담을 나누었다.

지난 9월 제19대 회장에 선출된 尹동문은 지난 10월 18일 뉴욕CC에서 90여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석해 친선 골프대회를 가졌으며 오는 12월 13일 힐튼호텔에서 송년잔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尹회장은 『재미동창회가 뉴욕에 있어 유대관계를 긴밀히 하고 앞으로 동문 및 동문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동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교소식

간호대학

간호교육 90주년 학술대회 열어



간호대학(학장 李笑雨)은 지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간호교육 9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0월 9일 鮮于仲皓총장, 李嫻淑정무 2장관, 鄭蓮江대한간호

협회장을 비롯해 5백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는 우리나라 간호학 발전에 기여한 미네소타대학교 간호대학 Sandra Edwardson학과장과 뉴욕 CMB의 Roy Schwarz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崔愛玉, 李松姬, 姜潤姬, 洪麗信, 楊銀淑, 朴明子, 李昌雨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57년, 67년 졸업 동문들의 학술 세미나와 1백50여점에 이르는 동문 출판물 전시회도 있었다.

음악대학

11월 16일 연주회

음악대학(학장 李成干)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3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지휘 林憲政)를 개최한다.

작년 개교 50주년 기념행사로 「말러의 교향곡 2번」 전악장을 연주하여 오케스트라의 열정과 기량을 선보인 데 이어 이날 공연에서는 「스트라우스의 돈 후안」과 「브람스의 교향곡 2번」을 연주함으로써 더욱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국제백신연구소」 창립축하연 국내 첫 국제기구 99년 건립

모교에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설치되기로 결정돼, 지난 10월 9일 관악캠퍼스 박물관에서 鮮于仲皓총장, 李明賢교육부장관, 辛承一IVI주비사무국대표, 전임 趙完圭, 金鍾云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지난 5월 유엔가입 27개국이 연구소 설립 국제협약을 비준

함에 따라 발족되는 이 연구소는 유엔개발계획(UNDP) 부속기관으로 앞으로 백신연구와 국가간 연구 협력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 연구소는 99년말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모교 후문 연구공원내에 연건평 5천평의 첨단연구 시설을 갖추어 건립될 예정이다.

학생처

모교 견학 프로그램 선보여

모교 학생처(처장 朴聖炫)는 모교 견학을 희망하는 중·고교 학생, 일반인, 단체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 「서울대 견학」프로그램을 마련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락처: 학생처 학사종합안내실 880-5061)

이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과 운영 일정은 다음과 같다.

□견학 대상 ▲단체 견학: 전국 고교 진학 담당자 및 모교 입학 희망자 등 단체, 특수견

학, 중학교 이하 학생 및 일반인 단체 ▲개별 견학

□견학 내용 ▲모교 홍보 영화 ▲모교 안내: 입시제도, 학과 특성 및 전망, 장학제도, 기숙사 등 학생후생제도 ▲시설 견학: 도서관, 문화관, 규장각, 박물관 등 학내 시설 ▲기타 견학 신청자의 요구사항

□견학 운영: 주 2일(1월 2회) 정규운영(화, 목) ▲1회-오전 10시~12시 ▲2회-오후 2시~4시

환경대학원

공원정책의 진단·전략 세미나

환경대학원(원장 楊秉彝)은 환경계획연구소(소장 金丁勛)와 공동주최로 지난 10월 29일 관악캠퍼스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에서 「우리나라 공원정책의 진단과 전략」을 주제로 제6회 도시·환경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95년부터 시작된 세미나는 도시·환경분야의 중요 쟁점들

을 학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합리적 정책개발에 공헌해왔다.

俞炳林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원태 한국경제사회연구원장, 캐나다 요크대 Michael Hough교수, 고동희 제주전문대 교수, 정영선 서안조경설계사무소장 등이 주제 발표를 했다. (變)

선배님 아세요?

—大學新聞 「대학살롱」중에서—

졸업사진 다이어트

◇완연한 가을, 정장을 「딱」 빼입고 졸업사진을 찍으며 관악 이곳 저곳을 누비는 일군의 선배들이 눈에 띄는데, 하지만 설레고 즐거워야 할 졸업사진 촬영이 「일부」 여학생들에게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고, 내용인 즉, 졸업 사진이 자신의 진로에 학점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이들이 무리한 「시한부 다이어트」에 들어가는 것. 들어올 때는 시험만 잘 보면 됐던 대학에서, 나갈 때는 외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니, 이에 쌀롱자 한마디 드리건데 「선배님들, 그래도 가을은 풍요의 계절입니다」

개교 51주년 기념식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姜晋求동문

鮮于총장 “세계속의 대학으로 도약하자”



모교 개교 51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월 14일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 모교 鮮于仲皓총장, 전임 尹天柱·李壽成총장, 洪承五대학원장을 비롯해 교직원,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朴龍安(해양학과)교수 외 42명이 30년 근속 표창, 李文雄(인류학과)교수 외 1백15명이 20년 근속 표창, 金長珪(교무과)행정주사 외 59명이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이어 제7회 「자랑스러운 서

울대인」에 삼성전자 姜晋求(57년 工大卒·본회 부회장)회장을 선정, 증서를 전달했다.

姜회장은 73년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에 몸담아 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통신분야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제고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공적사항 참조)

鮮于仲皓총장은 기념사에서 「작년 개교 50주년의 각오를 다시한번 확인하며, 지난 날의 명성과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명실상부한 세계속의 대학으로 도약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

할 것」을 당부했다.

본회 金在淳회장은 鄭宗澤상임부회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새로 시작하는 반세기의 첫 발을 내딛으면서 무엇보다도 민족 정기의 수립과 높은 도덕성의 함양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0월 17일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본회의실에서 개교 51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명예교수 초청 간담회」를 열어 모교 발전에 기여한 명예교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變)

金在淳회장 기념 축사

〈요지〉

청명한 가을날 관악캠퍼스에서 개교 51주년 기념 행사가 펼쳐지게 된 것을 23만 동문과 함께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선정되신 姜晋求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근속 공로로 표창을 받은 교직원 여러분에게 복되고 영광된 오늘이 있음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세계의 무대에 어느 정도 그 존재를 부각시킨 대한민국 역사의 이면에는 모교가 배출한 인재들의 재와 덕, 그리고 열과 성이 오랜 세월을 걸쳐 농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모교가 겨냥해야 할 무대는 한반도의 남쪽 절반이 아니라 전 세계입니다. 서울대인은 분단의 불행에 뒤로 하고 민족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갖고 있으며 통일 후 우리나라의 학문과 지성을 선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 또한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반세기의 첫 발을 내딛으면서 무엇보다도 민족 정기의 수립과 높은 도덕성의 함양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라는 이름 아래 뜻을 함께 하고 있는 동문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모교의 발전이 조국의 발전」이란 것이 우리 동창회가 내 건 기치입니다. 모교의 장래에 바로 우리 민족의 운명과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모교가 배출한 인재들이 과연 조국 앞에 응분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모교의 발전을 위해 얼마 만큼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일까? 모교의 위상과 그 목표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차분히 자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金在淳

鮮于仲皓총장 기념사

〈요지〉

작년에 우리는 서울대학교 개교 50주년을 맞아 여러가지 축하행사와 함께 지난 시대를 성찰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민족의 대학이기를 자임했고 세계 속의 대학이 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서울대학교에 거는 기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냉정한 자기성찰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년 이러한 다짐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짧은 기간에 성취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단순한 구호로나 막연한 선망으로 이루어질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를 위해 또 한번 우리의 각오와 다짐을 확인해 두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대학교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 대학으로서의 명확한 자기정체성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엘리트주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회의 최고지식을 산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뛰어난 준재들을 맡아 가르치는 교육의 요람으로서, 그리고 한국사회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정책적 대안들을 모색하는 우리 시대의 지성의 센터로서 서울대학교에 맡겨진 객관적인 위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윤리적인 자기책임감을 갖자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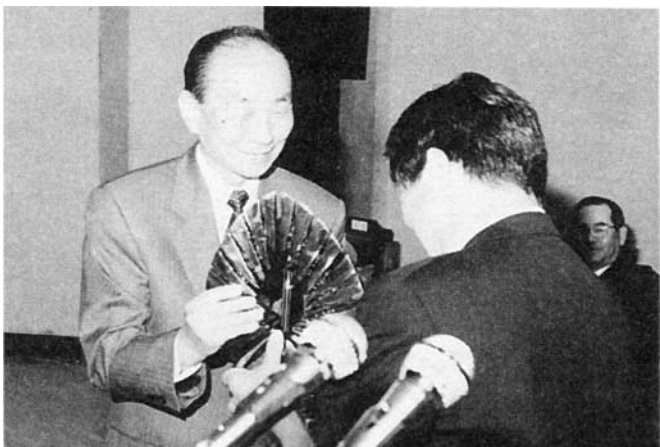
둘째로 한국사회에서 서울대학교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학문의 수월성과 창조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대학내외의 환경을 개혁하는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화 초기의 획일적 원리에 바탕을 두었던 지난날의 대학제도는 여러모로 새롭게 바뀌어야 할 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창의력을 겨루기 위해서는 탐구정신과 창의적 연구를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철저히 필요로 합니다.

셋째로 서울대학교는 명실상부하게 세계 속의 대학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미 유엔 백신연구소가 서울대학교에 설치된 것을 비롯하여 전세계의 석학들과의 지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로 유학을 오고 이곳에서 산출된 이론과 지식이 전세계로 확대될 수 있게 되기에는 여전히 갈길이 먼 실정입니다. 외국의 이론을 수용하는 일과 우리의 지혜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동시에 이루어 낼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적 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총장 鮮于仲皓

— 姜晋求동문 공적사항 —

「반도체·통신」발전에 지대한 공헌



鮮于총장이 姜동문(左)에게 선정 기념패를 전달했다.

姜晋求동문은 57년 모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전자산업을 세계 굴지의 수준으로 발전·성장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60년대 당시 姜동문은 척박했던 우리나라 전자산업에 투신하여 전자산업의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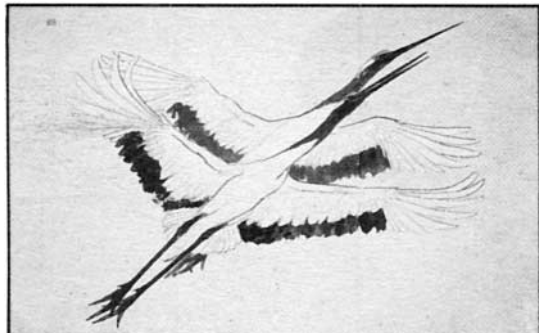
래를 예측하는 해안과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열정 및 신념을 갖고 매진해 반도체·통신분야에서 세계가 공인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국가산업 발전 및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했다.

주요 업적으로는 TV방송 장비를 우리 기술로 제작하

는 선구자적 역할을 했으며 컬러TV 및 전자렌지 자체 개발을 비롯하여 세계 최초로 256M DRAM을 개발 성공 시킴으로써 삼성전자가 가전, 통신, 반도체, 컴퓨터 등 첨단전자 부문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우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남다른 기여를 했다.

또한 姜동문은 첨단산업에 있어서 연구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교 컴퓨터신기술공동연구소의 설립 등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나라 공학교육을 국제적 수준으로 견인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국가의 전자산업 발전과 첨단인력 양성에 대한 姜동문의 업적과 활동은 서울대인과 후학들이 본받을 귀감이 됐다.

한편 姜동문은 94년 출범한 동창회 15대 회장단에서 부회장을 맡아오면서 모교의 발전은 물론 동창회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10월호를 읽고

「에너지 절약운동」 우리가 앞장서자



빛나는 23만 여의 구슬을 꿰어가는 「서울대 동창회보」는 폭넓고 간결하게 잘 짜여져 있다고 봅니다.

孔子는 「사람이 길을 넓히는 것이지 길이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人道弘道 非道弘人)」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꿰어진 구슬이 이 사회의 길을 넓혀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 신경제질서」의 개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에너지소비량이 102GJ(기가줄)이고 세계평균은 59GJ입니다. 우리 서울대인이 선두에 서서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 이 나라 경제에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朴龍鎭(55년工大卒)한국산업표준심의회 위원장

모교 총장·학장의 기고문 실었으면...



서울대 동문들은 다양한 전공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총동창회와 단과대 동창회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모교와 동문간의 거리를 좀 더 가깝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스탠포드대학에서는 정기적으로 경영대학장은 물론 총장이 서신을 보내오곤 합니다. 비록 몸은 태평양 건너에 있지만 이러한 서신을 받을 때마다 마음은 다시 교정 한가운데에 서있게 됩니다.

모교의 경우 아직 여건이 미비하다면, 우선 동창회보에라도 정기적으로 총장이나 학장이 기고문을 실도록 하면서 첫 걸음을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朴贊秀(85년 經營大卒)고려대 교수



과연 有錢無罪인가?

趙培淑(79년 法大卒)변호사

어떤 모임에서든 첫 대면에서 대개 상대의 직업에 관해 화제를 꺼내는 일이 많다. 나의 경우는 직업이 변호사라서 그런지 대뜸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화제로 올리면서 돈 때문에 사법적 정의가 왜곡되어서야 되겠느냐는 듯 자못 비장한 어조로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변호사라는 직업이 돈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그 직업이 이러한 왜곡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조가 깔려 있기도 하다.

불리한 판결의 방패 역할로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관찰에 불과하다. 물론 억울한 재판을 받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억울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특별한 설명없이 편리하게 변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천

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구치소에 약 2개월간 복역하다가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왔는데요. 법정에서 판사, 검사에게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속여넘겼는지 무용담처럼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뭐 나와서는 할말 없으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핑계를 대는 것이지요」

이렇게 판·검사를 속이는데 변호사를 속이는 일은 일러 무상하리요. 나도 한번 속은 사실이 있는데 구속된 내 의뢰인이 형사재판에서 「아내로부터 시골집에서 호출이 와서 시골집에 전화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것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되었었다. 나는 그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전화국에 통화내역을 조회했지만 결과는 그 시간에 그 시골집에서 호출을 한 내역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고 우롱당한 것 같아 불쾌했지만 금세 탄로날 거짓말을 하는 그들의 사려 없음과 그 뉘림이 가엾게 느껴지기도 했다.

어떤 것이 사실인가?



그것은 당사자와 전능하신 신만이 알 뿐이다. 그러나 신은 침묵하고 당사자는 거짓말을 하기 일쑤다. 특히 인간에게는 자신의 과오를 부인하고자 하는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의 강한 본능이 있어 진실대로 털어 놓기를 기대하기가 힘든 면도 있다.

이렇듯 자기부죄거부의 본능, 거짓말이 진실을 밝히기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有錢이어서 無罪하고 無錢이어서 有罪는 아니다.

자기 과오 부인하려는 본능

이제 우리는 신파조로 굳어버린 이 단어를 감상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법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감히 대담무쌍하게도 사법적 정의를 조롱하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직장생활 즐길 줄 알아야

張京順(87년 工大卒)조달청 기술심사과 서기관

꿀벌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꿀벌들이 일하는 것을 살펴보자하니 열심히 일하는 놈들은 전체의 30% 정도.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놈들을 따로 모아 놓았더니 그중 70%정도는 빈둥거리고, 최초의 꿀벌집단에서 놀고 있던 70%의 꿀벌들을 모아 놓았더니 30%의 일하는 놈들이 생기더라는 것이다. 확대해석하면 인간의 조직에서도 일하는 사람과 일별로 안하는 사람이 섞여 있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는 것.

자신 특화할 분야 개발하자

그렇다고 일 잘 안하는 사람이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일」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조직에서는 일 말고도 각 분야에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인간형이 필요한 바.

내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말하고 싶어서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생활이 즐거우려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70%의 일하기 싫어하는(또는 일 못하는) 집단에 만약 내가 속하게 된다 할지라도 패배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다만 자신을 특화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한 조직에서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그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그 또한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되고 직장생활이 즐거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내 경우를 말하자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별로 유능한(일 잘하는) 쪽으로는 자신도 없고 공식적인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도 자유롭지 못한 개인적인 사정상 밤늦게까지 업무로 씨름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라 일찌감치 일에 대한 미련을 어느 정도 포기해 버렸다.



나 스스로 편해지기 위해서. 여성이니까 일을 좀더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니까 일도 잘되고 재미있었다.

조직에 자연스런 동화 필요

회사를 긴장과 투쟁과 경쟁의 장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느끼는 장으로 만들려는 노력이다. 또한 여성이 귀한 조직의 특성에 맞추어 공식적인 행사나 우리청 홍보요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조직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다.

조직생활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조직의 활력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닐까.

재미 작곡가 權吉相 동문



모교 치대 閔丙一 명예교수

「과꽃」등 동요 2백여 곡 작곡

어린이 음악교육에 반평생 바쳐

「올해도 과꽃이 피었습니다. 꽃밭가득 예쁘게 피었습니다」

「과꽃」, 「꽃밭에서」, 「스승의 은혜」등 따스하고 정감어린 동요를 작곡해 어린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權吉相(48년 音大卒·캘리포니아 한국소년소녀합창단 명예이사장)동문이 95년 한국동요 반세기 기념 작곡집 「꽃밭에서」를 펴낸 후 지난 9월 8일 고회기념 「가족·동포의 노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몸은 비록 떠나 있으나 마음은 항상 모국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는 權동문은 「음악으로 통일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64년 음악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이주하여 Cal Arts에서 수학한 權동문은 「80달러 주고 산 중고차로 피아노 출장교수를 하러갔다가, 시동이 꺼져 진땀 빼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고했다.

45년 해방이 되자 「우리말로 된 노래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고 싶다」는 열망으로 동요작곡을 시작하게 됐다는 權동문은 安丙元(50년 音大卒), 吳鉉明(48년 音大卒)동문과 함께 「봉선화 동

요회」를 만들어 한달에 한번 어린이가 잔치 겸 음악회를 열었는데 吳동문이 직접 종이를 오려 무대장식을 하던 일이 눈에 선하다고.

그동안 동요 2백여곡, 동포의 노래 20여곡, 가곡 등 왕성한 작품활동을 해온 權동문은 이외에도 음악교실, 합창단 등을 만들고 주말 한국어 교육기관인 무궁화학원(현 남가주한국학원) 초대원장을 지내는 등 어린이 교육에 평생 헌신해왔다.

제31회 소파상, 제7회 KBS동요대상, 대한민국 동요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는 權동문은 「평소 기쁜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동시를 많이 읽는다」면서 서울대동문에게 「모든 권리는 의무의 이행에서 시작되며 나보다 남을 높이는 자세를 잃지 말자」고 당부했다.

최근 고회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공부를 시작한 權동문은 부인 韓廷熙여사와의 사이에 3남1녀를 두었으며 장녀 熙媛씨가 USC, 음대 대학원을 나와 피아노교수로 재직, 權동문의 뒤를 잇고 있다. (變)



고회기념 「가족·동포의 노래」출판기념회, (앞줄 좌로부터 세번째 權동문)

30년간 언청이 무료 시술 봉사

“러시아동포 위한 의술 펼칠 터”

「명예나 재물에 욕심내지 않고 저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언청이들을 위해 봉사한 것이 이제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만 30년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제주와 각 오지 섬마을 등을 돌며, 언청이 환자를 무료 수술해온 閔丙一(56년 齒大卒·모교 명예교수)동문.

閔동문은 지난 68년부터 의료수준이 낙후되고 경제사정 및 불편한 교통으로 언청이가 수술을 받기위해 서울에 드나들기 힘들었던 제주 지역에서부터 봉사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왔다.

「당시에는 비좁은 수술실에서 얼음과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며 집도했으며, 한번 봉사활동을 다녀오면 입술이 부르토고, 몸살이 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보호자들이 찾아와 말도 잘 할 수 없었던 우리 딸이 유치원 노래자랑에 나가 상을 받아 왔다고 감사 인사를 전할 때면 그간의 어려움은 모두 잊게 됩니다」

모교 대학원에서 구강악안면외과의를 전공한 閔동문은 제주 지역에서만 약 4백여명의 환자에게 무료로 시술을 펼쳤다. 64년 수도육군병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월남에 최초로 파견된 閔동문은 대민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현지의 언청이 환자들에게 무료 수술을 처음 시작했다. 귀국후 제주를 비롯하여 울릉도, 삼척, 울산, 구미, 선산, 진주, 안면도, 덕적도 등의 오지 마을을 돌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봉사해 왔다.

한 해도 거르지 않은 봉사활동으로 제주도에서는 지난 81년 명예도민 제2호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86년 「지역사회개발봉사」 부문 「제주도 문화상」을 수상했다. 「제주지역의 의료수준이 눈에 띄게 좋아져 이제는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무척 기쁘니



언청이 무료 시술장면(원내 閔동문).

다」 올해로 30년의 무료 수술활동을 마감한 閔동문은 제주도지사와 제주의료원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라이온스클럽 원로 회원이기도한 閔동문은 중앙 및 제주 라이온스클럽의 후원을 얻어 무료시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료 기자재를 지원하는 활동을 해왔다. 지난 93년부터는 그 활동 범위를 중국 연변의 조선족이나 베트남 등으로 넓히고 있으며, 일반 독지가 및 국제협력단 등을 통해서 낙후된 의료시설을 우리나라의 첨단 제품으로 바꿔주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는 타슈켄트 등의 러시아 지역의 우리나라 동포들을 위해서도 의료활동을 펼치고 싶다」는 계획을 피력한 閔동문의 힘찬 모습은 6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중년을 넘어선 것처럼 활기차 보였다. 가족으로는 姜遠珠여사와의 사이에서 2男1녀를 두고 있으며, 장남 復基씨와 함께 대학병원 수준의 치과를 운영중이다. (美)

문화
신문

新刊

■ 배꼽이 잊히리아

—朴英子 著



란 시조집에 이어 최근 「배꼽이 잊히리아」란 번역시집을 펴냈다.

「독도」, 「윤희」, 「우리 열」 등 20여편의 시들을 영어와 일어로 번역해 놓아 차동문의 정열과 겨레·인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신세림·값 5,000원)

시인 박英子 (50년 師大卒) 동문이 지난해 「배꼽 같은 이야기」

■ 북한정치입문

—李相禹 著



사단법인 신아세아질서연구회 회장인李相禹 (61년 法大卒·본

회 부회장) 동문이 일반 시민들이 북한 정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金正日정권의 특성과 작동원리」라는 주제로 북한 정치 입문서를 펴냈다.

李동문이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로서 그동안 강의해온 내용을 정리한 이 책은 12장으로 구성돼 각 장마다 참고문헌을 소개하고 있다. (나남출판사·값 7,500원)

■ 신비한 오행벌침요법 정통 오행지압백과

—金棟鉉 著

한국오행벌침연구회 회장인

金棟鉉 (85년 社會大卒) 동문이 벌침을 이용한 질환별 치료법을 설명한 「신비한 오행벌침요법」과 가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응용할 수 있는 지압법을 수록한 「정통 오행지압백과」를 펴냈다.



「신비한 오행벌침요법」은 벌침의 특성·성분·효능, 오행 및 경혈에 대한 개요, 질환별 벌침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

金동문은 한의학적 오행침법에 벌침을 결합해 많은 환자를 치료해오고 있는데 벌침의 이론적 배경과 치료 실례를 집약해 이 책에 담았다. 한국오행벌침연구회·3471-2588 (太乙출판사·값 30,000원)

■ 내사랑 돌네

—趙休翼 著



수의과 대학동창회 부회장으로 있는趙休翼 (63년 獸醫大卒·중

부가축병원장) 동문이 30여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강아지를 키우는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애견 지침서를 펴냈다.

2년동안 기획, 연구한 자료를 만화 형식을 빌어 출간한 이 책은 일반인의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주리라 본다. (도서출판 삼안·값 12,000원)

公演

■ 安惠鮮피아노독주회

—11월 16일 예술의 전당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Mozarteum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安惠鮮 (89년 音大卒) 동문이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스키타리, 슈베르트, 베토벤 등의 작품으로 독주회를 연다.

■ 李知垣호른독주회

—11월 18일 예술의 전당

79년부터 인천음협 콩쿠르, 서울음협 콩쿠르, 동아콩쿠르 등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李知垣 (87년 音大卒) 동문이 호른 독주회를 열고 모차르트, 슈만 등의 작품을 60분동안 연주한다.

■ 金美連바이올린독주회

—11월 24일 연강홀

KBS교향악단 단원인 金美連 (89년 音大卒) 동문이 해외 공연을 마치고 귀국, 독주회를 갖는다. 이날 공연에서는 비탈리, 베토벤, 프로코피예프, 스메타나의 작품을 선보인다. (變)

동문기고

대장균 O-157:H7 파동(?)

文 雄 (68년 獸醫大卒) 하나무역 대표

최근 매스컴에서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에서 대장균 O-157:H7이 우리나라 동물 검역 당국에 의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연일 주요 뉴스로 나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병균은 작년에 일본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1만여명 발병, 사망 12명)을 일으킨 바로 문제의 병균이었던 것을 들어 알고 있는 터라 가뜰이나 불경기에 수입 쇠고기 전문 정육점은 아예 개점 휴업상태에 있거나 대부분 재빠르게 한우 전문 정육점으로 바꾼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신속·정확한 규명있어야

자기 건강을 위한 식품이나 약품에 대해서 우리 나라 사람처럼 고집스럽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민족도 드물 것이다. 건강에 좋다면 그 소재가 무엇이든간에 기를 쓰고 먹고야 마는 고집을 부려 해외에 원정까지 가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며 (태국에서의 곰사건) 보신탄은 여전히 인기 보양식으로 사계절탕이 되었다. 그런 반면 또 어떤 식품이나 약품이 유해하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있기만 하면 민감한 반응을 보여 매일 아무탈 없이 먹던 것을

하루아침에 외면해 버리는 냉정함을 보이기도 한다.

좋은 예로써 과거의 「고려우유 파동」, 「메칠알콜은행악액기스 파동」과 「공업용 우지 사용 라면 파동」 등에서 경험했듯이 문제의 제품은 당장 소비가 격감되고 「파동」에 휘말린 업체는 경영난에 빠지게 되며,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인한 막대한 손실과 「무해」를 주장하는 길고 긴 법정 투쟁을 겪는 고통도 감수해야만 한다. (우지라면 파동은 최근 10년간의 길고 긴 법정 투쟁 끝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한가지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은, 그 「파동」에 관련된 식품이나 약품이 단 1건도 사람에게 유해한 것으로 판정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볼 때 소비자인 국민들은 쓸데없는 피해의식과 불안감을 겪어야 했고, 관련 기업은 엄청난 경영 손실을 입어 모두가 피해자가 된 것이 사실이다. 과거 예의 「파동」때, 정부측에서 신속하고도 정확한 규명과 대책수립이 있었더라면 그런 피해는 줄일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대장균 검출 사실 보도 이후 정부 당국이 취한 신속하고도 명확한 조치는 과거의 「파동」때와는 전혀 달라

저서 관련 분야를 전공한 한 사람으로서 동물검역 당국과 보사당국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더욱이 한국에서 O-157:H7 검출사실이 보도되자 수출 당사국인 미국의 동물 방역 당국에서는 즉각적으로 한국 동물검역 당국과 「합동재검사」를 위해 검역 전문가를 주축으로 지난 10월 7일 韓美 검역 전문가회의를 가졌다.

미국 측에서 한국의 검역제도, 검사방법 및 절차 등의 설명을 듣고 금번 O-157:H7의 검출과정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후 당초 제기했던 공동검사 및 재검사 요구를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한국 측에서 요청한 금번 검출된 수입육의 작업장에서 생산한 쇠고기의 대한국 수출금지 조치는 물론 대한국 수출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한층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완벽한 검역체계 요구돼

세기 최대의 축산물 수출국의 검역 전문가들이 한국의 검역당국의 실력을 과소평가 했다가 오히려 당당한 우리 정부 당국에 입을 열지 못했다는 것을 듣고 한국의 검역기술의 세계화가 입증된



것으로 패재를 부르고 싶다. 앞으로 다가오는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2001년)에 대비해 보다 완벽한 검역체계와 정확한 검출을 위한 분석기기 등 시설보완과 인적자원의 확보가 숙제로 남는다.

이제부터 대장균 O-157:H7(Escherichia Coli O-157:H7)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보통은 O-157:H7(0는 숫자의 0이 아니고 알파벳 O(0형원의 약어)이므로 「오일 오칠」대장균으로 불러야 맞다)로 부른다. 이 병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관(대장)에 있는 균으로서 약 9천종이 있으나 대부분 비병원성(질병을 유발하지 않는)이며, 이중 병원성을 갖고 있는 대장균은 46종으로 Vero독소(시가독소)를 생산하는데 독소명칭을 따서 VIEC(VERO독소 생산 대장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문제의 O-157:H7이 여기에 속한다.

이번 O-157검출 보도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쇠고기 기피현상」이 일어날 우려도 있었으나 선진 방역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의 검역 전문가들조차 우리나라의 방역체계와 검출기술에 만족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이후 전체 쇠고기의 소비동향은 10%

정도 감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수입 쇠고기는 약 30% 정도 소비가 감소했다는 보도를 볼 때 과거의 그런 「파동」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한우 공급대책 시급하다

O-157이 증가 추세에 있는 미국에서, 쇠고기는 햄버거용 분쇄육에 한해서 O-157검사를 하나,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한국에서는 원료육과 모든 유가공품에 대해 철저한 O-157검사를 해오고 있다니, 안심할 일이다. 더욱이 미국에서 대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더욱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것을 약속받은 것도 잘 된 일이다. 다만 정부당국에서는 2001년의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앞두고 한우 쇠고기의 공급 확대를 위해 시급한 대책과 검역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본다.

하절기에 생식 삼가하자

끝으로 외국에서 발생한 발생사례를 보면 하절기인 6~9월 사이에 발생률이 높은 것을 볼 때 하절기에는 쇠고기를 철저히 익혀 먹고, 생간, 육회, 생고기를 먹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만 안심해도 좋은 일은 사람 대 사람간의 접촉감염의 우려는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 검역당국의 철저한 방역과, 식생활에 더욱 신경을 쓴다면 「O-157」은 「파동」을 몰고 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회비를 내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회비는 동창회 운영과 모교지원 활동에 밑거름이 됩니다.
회보를 받아보시는 국내외 동문중 아직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理事: 9월 6일 ~ 9월 29일 · 一般: 9월 6일 ~ 9월 30일〉

이 사

◇工科大學

▲강성원(48)성진기업 사장
▲김상길(68)(주)동성지질 대표
▲김상주(56)前서울대 교수
▲김석현(59)前우진산업부사장
▲김필한(53)대마광업전문이사
▲노준연(59)공항버스상무이사
▲박동서(55)현대건설 상무
▲박홍철(55)부림건설 부사장
▲백성기(60)동국무역 회장
▲신금진(56)한국전력기술고문
▲이경훈(58)(주)대우 회장
▲이금석(54)우보기술단 사장
▲이신환(54)서강건축사무소장
▲임무현(55)대주정밀화학대표
▲정명식(55)한국산악회 회장
▲정삼근(54)상진개발대표이사
▲조정완(44)KAIST 교수
▲주경재(57)건국대 대학원장
▲최인재(57)협우(주)대표이사
▲편도권(58)유신Co. 부사장
▲한상겸(57)우림종합건축대표
▲홍광표(53)남양세라믹대표

◇農科大學

▲김동암(56)서울대 교수
▲김진필(52)前미성농약 대표
▲민관식(40)아세아정책연구소
▲이상규(59)중앙토건 부사장
▲조장환(60)단국대 총장

◇文理科大學

▲고석명(55)크린텍 대표이사
▲김성호(61)집현사 사장
▲김세종(57)유경회 고문
▲민영기(61)경희대 교수
▲박홍규(66)외교안보연구 교수
▲변광수(59)제일은행 지점장
▲신효순(61)새한종합금융공사
▲오희필(53)중도발전연구협회장
▲장종학(53)현송문화재단상무

◇法科大學

▲강성재(54)국회의원
▲김기천(55)변호사
▲김도연(53)국회의원
▲김석휘(57)변호사
▲김성산(58)사회복지법인부장
▲김성수(52)오양수산 회장
▲김창기(68)기업은행 감사부
▲김형기(54)변호사
▲박경재(66)변호사
▲송상현(63)서울대 법대학장
▲안상수(69)국회의원

▲유지한(65)서울銀연수원교수
▲이관홍(60)前한국은행자문역
▲이법재(62)웅민인터내셔널
▲이상화(60)前중소기업연구원
▲이영주(63)조달청 시설국장
▲이용우(65)수원지법 법원장
▲이재영(62)동창실업대표이사
▲이종상(58)동원증권상임고문
▲이충호(72)한일시멘트 이사
▲이흥구(53)국회의원
▲이효종(63)변호사
▲정귀호(63)대법원 대법관
▲조영동(57)방산지업상사사장
▲조현발(72)변호사
▲하성대(52)前세방그룹 감사
▲황영하(64)대한주택공사사장

◇師範大學

▲김대형(65)서울대 교수
▲김삼열(58)신일중학교 교장
▲김영봉(61)중앙중학교 교장
▲신충언(77)문화목재 사장
▲오계철(49)前서강대 교수
▲최종욱(58)이화여고 교장

◇商科大學

▲김일섭(59)삼일회계법인
▲김종덕(59)제일시티리스회장
▲유병현(61)한불종합금융사장
▲이상득(61)국회의원
▲허남린(60)前삼성전자 이사

◇獸醫科大學

▲성기문(58)이수의과병원 원장

◇藥學大學

▲김영일(65)유한화학공업상무
▲박경렬(73)유성약국 약사
▲박승규(63)장수약국 약사
▲이진표(59)대진약국 약사
▲이홍래(56)삼보약국 약사
▲조양래(76)태경 전문이사

◇音樂大學

▲한상우(62)음악춘추 편집인

◇醫科大學

▲김형주(61)서울의원 원장
▲박주배(74)서울대 교수
▲방덕한(59)고한심심의원원장
▲오경근(50)前오산부인과의원
▲이동호(79)한양대 교수
▲이병주(67)이병주의원 원장
▲이용섭(58)이산부인과의원장

◇齒科大學

▲김영선(50)김영선치과 원장
▲변인숙(78)현대부부치과원장
▲오춘규(68)오춘규치과 원장
▲최재함(51)삼양치과 원장

◇經營大學院

▲유진성(67)오성코퍼레이션
▲이경훈(63)(주)대우 회장

◇保健大學院

▲김영일(74)유한화학상무이사

◇行政大學院

▲강병천(73)(주)석천 대표이사
▲박삼규(70)중소기업진흥공단
▲조한유(80)조세연구원 국장

일 반

◇人文大學

▲강석봉(60) ▲김기만(55)
▲김원중(59) ▲김익수(88)
▲김호연(79) ▲류 진(83)
▲박용수(88) ▲손진욱(89)
▲송재복(65) ▲신영호(94)
▲신정현(77) ▲용 호(85)
▲유석형(78) ▲유정렬(85)
▲유환식(84) ▲윤영필(85)
▲윤종범(81) ▲이광용(85)
▲이민호(87) ▲이한목(76)
▲임재주(89) ▲임준규(89)
▲장낙도(89) ▲정달순(84)
▲정영란(77) ▲정은진(89)
▲정준경(88) ▲정혜경(87)
▲최 민(83) ▲최성락(79)
▲하태진(89) ▲홍기선(83)
▲홍성민(81)

◇社會科學大學

▲권태한(80) ▲김덕인(89)
▲김동식(92) ▲김수호(76)
▲김영진(81) ▲김인상(76)
▲김재홍(76) ▲김희남(82)
▲류병호(89) ▲박동영(85)
▲박두선(92) ▲박만순(81)
▲박미영(88) ▲박철용(92)
▲박해룡(83) ▲박호성(82)
▲박홍재(88) ▲방창식(87)
▲서경국(87) ▲서동영(83)
▲양석운(94) ▲윤현중(88)
▲이 근(83) ▲이근승(89)
▲이근태(89) ▲이동섭(89)
▲이동욱(88) ▲이원희(85)
▲이정식(81) ▲이창우(88)
▲임갑수(96) ▲임병수(89)
▲전병각(93) ▲전형남(85)
▲정민오(87) ▲정병욱(85)

▲정재호(77)
▲조학수(76)
▲진태환(77)
▲최낙민(87)
▲표영선(91)
▲한동원(77)
▲허 윤(86)

▲정충기(85)
▲지호준(84)
▲최 현(89)
▲최상규(86)
▲하승보(86)
▲한영기(82)

▲김홍섭(83)
▲서승현(89)
▲심성보(87)
▲이수철(93)
▲임 유(90)
▲전용배(86)
▲최 혁(79)
▲최호순(85)

▲사진우(88)
▲신동환(82)
▲유제화(85)
▲이종인(77)
▲임종민(80)
▲정용진(94)
▲최상길(89)

◇自然科學大學

▲강대승(88) ▲강현모(83)
▲김중해(80) ▲김대용(86)
▲김대환(93) ▲김용백(89)
▲김효중(88) ▲문병국(83)
▲문희록(76) ▲박도진(94)
▲배새벽(83) ▲서인실(85)
▲신기순(89) ▲심원준(90)
▲안수한(92) ▲안중석(76)
▲오달균(80) ▲원채희(88)
▲이상철(88) ▲이승민(76)
▲이용학(78) ▲이재호(91)
▲이정호(92) ▲이종대(89)
▲임하나(86) ▲임형호(88)
▲전용호(79) ▲정익교(76)
▲정진동(88) ▲조상욱(88)
▲조진우(93) ▲최성아(89)

◇家政大學

▲권종숙(84) ▲김수희(88)
▲김영희(74) ▲김혜경(82)
▲박인자(86) ▲송인영(75)
▲신의희(84) ▲신현숙(76)
▲육완진(61) ▲이남희(73)
▲이보숙(80) ▲이소영(82)
▲이신영(82) ▲이은영(70)
▲이중희(82) ▲이효진(84)
▲정경숙(82) ▲정해자(85)
▲조영옥(82) ▲조현순(86)
▲조혜자(84) ▲최경희(83)
▲최영혜(75) ▲최운정(94)
▲홍경자(82) ▲홍영선(81)

◇看護大學

▲강남미(83) ▲권오겸(59)
▲김명자(59) ▲김혜순(72)
▲박현자(67) ▲소형선(77)
▲신은숙(69) ▲신인경(88)
▲오은경(82) ▲우정순(58)
▲윤순녕(73) ▲이기춘(76)
▲조명숙(70) ▲조미경(94)
▲진성희(74) ▲현수혜(87)
▲홍성은(80) ▲홍희정(86)

◇經營大學

▲강민균(94) ▲고광중(78)
▲김문수(94) ▲김용건(89)
▲김운수(85) ▲김주희(78)

◇工科大學

▲강근택(76) ▲강동식(78)
▲강무치(71) ▲강봉돈(75)
▲강상철(71) ▲강신구(57)
▲강연준(88) ▲강태호(72)
▲강태환(79) ▲경신호(59)
▲경창성(75) ▲고문찬(73)
▲고시현(75) ▲공성일(64)
▲곽동수(57) ▲권기득(77)
▲권승혁(78) ▲권오주(92)
▲권혁정(56) ▲권혁중(92)
▲기승준(57) ▲김건희(73)
▲김경락(61) ▲김경미(86)
▲김경희(73) ▲김계휘(62)
▲김광모(56) ▲김광택(64)
▲김광태(94) ▲김규섭(71)
▲김기일(74) ▲김대웅(67)
▲김동관(82) ▲김동주(70)
▲김동하(91) ▲김모세(94)
▲김범준(95) ▲김병석(82)
▲김상기(70) ▲김상식(64)
▲김상혁(79) ▲김석철(66)
▲김선원(79) ▲김선준(80)
▲김성문(79) ▲김성민(96)
▲김성우(63) ▲김성운(93)
▲김성태(90) ▲김순일(61)
▲김영석(91) ▲김영웅(74)
▲김영정(85) ▲김용국(88)
▲김용균(81) ▲김용식(74)
▲김용익(54) ▲김용직(55)
▲김원규(74) ▲김원태(61)
▲김응중(53) ▲김의석(88)
▲김재설(62) ▲김재수(81)
▲김재수(95) ▲김정태(80)
▲김종선(93) ▲김종완(84)
▲김종인(70) ▲김종진(77)
▲김주철(90) ▲김준식(80)
▲김진규(66) ▲김진영(63)
▲김진우(56) ▲김찬중(83)
▲김찬호(87) ▲김철순(57)
▲김춘고(68) ▲김춘석(60)
▲김충기(65) ▲김충섭(65)
▲김태경(72) ▲김태성(70)
▲김태현(86) ▲김태호(72)
▲김태훈(70) ▲김태중(88)
▲김학준(79) ▲김현진(60)
▲김형기(65) ▲김형민(81)

▲김형석75	▲김형석96	▲이무호59	▲이병화94	▲김원국88	▲김원숙47	▲김규완63	▲김남기72	▲정 해50	▲정구호59	
▲김형수94	▲김형주82	▲이상건78	▲이상구85	▲김인희58	▲김재윤72	▲김덕창63	▲김덕환69	▲정방자65	▲정병후49	
▲김형합95	▲김희수92	▲이상국84	▲이상준68	▲김정국47	▲김정혜65	▲김동학57	▲김동훈54	▲정복근64	▲정삼윤68	
▲나상천75	▲남 홍64	▲이상철71	▲이상춘72	▲김종국65	▲김지문49	▲김만옥63	▲김묘옥57	▲정순철57	▲정시호60	
▲남상원81	▲남재도84	▲이상현69	▲이선계69	▲김진옥56	▲김창성88	▲김방한52	▲김병일64	▲정연국68	▲정영의59	
▲남택중66	▲노중기81	▲이성실55	▲이성재79	▲김철환64	▲김택구70	▲김부영68	▲김성기67	▲정옥희60	▲정창렬63	
▲류경희69	▲류명선88	▲이성환70	▲이수근88	▲김현성78	▲김호탁64	▲김성희67	▲김영식68	▲정철현62	▲정학성72	
▲류세열90	▲맹두진92	▲이양동83	▲이오재92	▲남구한64	▲도무회69	▲김영안75	▲김영진57	▲조남성70	▲조남홍62	
▲목하균80	▲문상규64	▲이완상58	▲이우연55	▲류관희67	▲류기승63	▲김영필56	▲김용모70	▲조동일66	▲조성식46	
▲문승일85	▲문영학70	▲이윤표81	▲이의은84	▲류석준89	▲문태화75	▲김용성68	▲김윤희71	▲조순문67	▲조순자57	
▲문인수72	▲문정호91	▲이인수79	▲이일환60	▲민종기72	▲민태혁66	▲김장년70	▲김정택60	▲조용주72	▲조인남66	
▲민병선60	▲박광원69	▲이재운67	▲이정만74	▲박경호72	▲박광훈57	▲김종섭70	▲김진영74	▲조정제63	▲조한웅66	
▲박구원73	▲박규원73	▲이정진91	▲이중수86	▲박기진93	▲박상만72	▲김철자57	▲김태동66	▲조홍래67	▲주영길71	
▲박기도67	▲박덕규85	▲이종웅67	▲이종진59	▲박성학66	▲박순조61	▲김하중69	▲김한배71	▲주영돈64	▲주형근68	
▲박동문81	▲박동훈70	▲이종화55	▲이준원75	▲박승걸57	▲박용재62	▲김형근57	▲김형렬61	▲지경홍64	▲차미례72	
▲박민규91	▲박민용85	▲이중근61	▲이지량79	▲박응봉54	▲박종서66	▲김호철53	▲김홍식64	▲최병렬68	▲최선진62	
▲박병완82	▲박병일81	▲이진근41	▲이찬식79	▲박현봉79	▲박효근63	▲김희영56	▲나기웅75	▲최연대57	▲최연상60	
▲박병중69	▲박선원70	▲이창원91	▲이창룡65	▲박희구56	▲배기식58	▲남용채64	▲독고찬59	▲최용찬59	▲최일환62	
▲박성대58	▲박신규68	▲이춘호74	▲이태균78	▲백연수65	▲사공문79	▲마순자75	▲명수식66	▲표철수75	▲한영수68	
▲박신규68	▲박영일78	▲이태수81	▲이필원71	▲서원수64	▲서정연89	▲문병택71	▲문화화60	▲한영호62	▲허 룩65	
▲박용남65	▲박이관62	▲이해준44	▲이희달77	▲성기철62	▲송기언60	▲민석홍48	▲박경호66	▲홍숙자60	▲홍승오58	
▲박재성89	▲박재학76	▲임경호86	▲임광수52	▲송은경86	▲송종관56	▲박대일69	▲박동훈65	▲황병선71	▲황윤석63	
▲박정진96	▲박정훈95	▲임만직60	▲임서환74	▲신명철67	▲신원집64	▲박명도66	▲박병언65	◇美術大學		
▲박진표95	▲박찬웅73	▲임재용84	▲장봉식86	▲안병권62	▲오현준61	▲박석홍67	▲박원규67			
▲박현민85	▲박형순65	▲장세일63	▲장영원70	▲은형근86	▲우병국80	▲박용환66	▲박일현52	▲강경구81	▲김경숙67	
▲박호창38	▲박희진94	▲장용균67	▲장준근90	▲우상호65	▲원청연69	▲박종세66	▲박종웅75	▲김미령76	▲김성천86	
▲배근호70	▲배승환58	▲장현갑73	▲장호진93	▲유기락88	▲유석린54	▲박철홍50	▲방익찬73	▲김소선67	▲김종철95	
▲배오섭80	▲백남주52	▲전동완60	▲전백현61	▲유영산68	▲유영준65	▲배영희53	▲백명현71	▲김진경86	▲김형률89	
▲백병훈74	▲백사익42	▲전병진78	▲전봉홍64	▲유지풍59	▲유충렬78	▲백영근59	▲백영철66	▲나경문56	▲남 철62	
▲변동필79	▲변형직51	▲전창선64	▲정경수56	▲윤영기70	▲윤우성61	▲백운길50	▲백제현71	▲문기선61	▲박미화79	
▲서경석56	▲서기영74	▲정방언77	▲정산용73	▲윤재인53	▲윤호병72	▲서군강65	▲서말순63	▲박상민65	▲박승호87	
▲서동운49	▲서동호63	▲정시현77	▲정운택59	▲이관희59	▲이기태87	▲소상영48	▲순화규73	▲박종대67	▲박항률74	
▲서완석64	▲설재훈78	▲정자철62	▲정주열80	▲이데레89	▲이만복60	▲신경섭72	▲신동균63	▲박향숙62	▲변진의65	
▲성기윤89	▲성낙준57	▲정진건70	▲정진성58	▲이명희91	▲이문재86	▲신동철65	▲신이현56	▲안문자61	▲안필연84	
▲성진환95	▲손경업69	▲정창우73	▲정치권67	▲이상용65	▲이석건70	▲신행철61	▲신헌웅68	▲양창보62	▲오영희75	
▲손상규91	▲손승래58	▲정태균93	▲정현술82	▲이석우63	▲이석주58	▲신헌철72	▲안교환61	▲유관호60	▲이경옥68	
▲손중권75	▲손창근53	▲조남혁61	▲조병문65	▲이어연56	▲이연근64	▲안병섭60	▲안삼환66	▲이계안64	▲이낙훈54	
▲손효원75	▲송배원79	▲조영일67	▲조용훈82	▲이영환56	▲이종석68	▲안운선59	▲안정수66	▲이승령71	▲이영애70	
▲송창원66	▲송취국73	▲조정남67	▲조종목80	▲이중훈54	▲이학로72	▲안표순56	▲안현화56	▲이원자63	▲이종목83	
▲신국범56	▲신기조43	▲조준한67	▲조진호58	▲이해근71	▲이흥석56	▲양은승57	▲엄기영74	▲임상진60	▲임순자73	
▲신동엽74	▲신선호66	▲조현우67	▲진평식64	▲이흥구58	▲임광환59	▲엄영섭70	▲염정임67	▲장성란70	▲장지원76	
▲신승교65	▲신종계77	▲진행섭70	▲차원갑53	▲임봉호40	▲임상봉66	▲오권태62	▲오길록68	▲정선화60	▲정연석79	
▲신치재63	▲심봉섭68	▲차재열91	▲채성기63	▲임수호63	▲임채원86	▲오세화65	▲오재규52	▲정은주75	▲주해준61	
▲심우갑68	▲심임섭78	▲천희영51	▲최겸수64	▲전기영59	▲전승규56	▲오현우50	▲우성규70	▲지윤미66	▲최국병66	
▲심형주56	▲심호섭97	▲최경영87	▲최경준69	▲정기선79	▲정돈철72	▲우종택58	▲원복종72	▲최기숙68	▲최순규90	
▲안 인72	▲안경수74	▲최광열73	▲최규명81	▲정병현66	▲정봉구59	▲유광석73	▲유기수57	◇法科大學		
▲안광석85	▲안병휘69	▲최득수62	▲최병국74	▲정선용63	▲정성교69	▲유수현53	▲유연수63			
▲안상철88	▲안성준85	▲최상진82	▲최성배86	▲정연택87	▲정용화90	▲유영균67	▲유지현74	▲강기철54		
▲안우희66	▲안치명65	▲최영태56	▲최원호76	▲정우원83	▲정윤규65	▲유진형56	▲윤성구74			
▲양근수62	▲양문규48	▲최유영68	▲최재웅89	▲정익신70	▲정천용63	▲윤옥현68	▲윤정목72	▲강대신67		
▲양봉기83	▲양영일72	▲최철규83	▲최항순70	▲정현석95	▲조성민84	▲이 환55	▲이광순65			
▲양원호61	▲양윤홍70	▲최효병65	▲한상영72	▲조재구90	▲조진태58	▲이규일57	▲이길준66	▲강신경61		
▲양종하74	▲양준모89	▲최효병65	▲한상조57	▲조태호58	▲조항래72	▲이달용70	▲이동규74			
▲엄익준73	▲여영구79	▲한홍희65	▲허길수66	▲조희렬63	▲차재선86	▲이동우58	▲이명현64	▲강정남66		
▲오동훈89	▲오석동63	▲현명호73	▲홍규식86	▲채수근58	▲최규홍58	▲이병형71	▲이상섭52			
▲오신남64	▲오희진66	▲홍동진75	▲홍문기84	▲최낙현65	▲최무재59	▲이상택61	▲이세구66	▲강충식77		
▲오인식66	▲유무영64	▲홍사우60	▲홍선표57	▲최민호60	▲최승호83	▲이수택68	▲이순길65			
▲육영석82	▲유무영64	▲홍성관66	▲홍성훈59	▲최양부68	▲최영주82	▲이시우68	▲이영록70	▲강찬우85		
▲유무웅64	▲유상부64	▲홍순곤56	▲홍재훈85	▲최정열78	▲하 경89	▲이오재66	▲이용우70			
▲유세중84	▲유영삼92	▲홍종민68	▲홍찬호86	▲하철경61	▲한상봉63	▲이우석57	▲이우용68	▲강희문67		
▲유준만70	▲유철재94	▲홍해남77	▲황계문71	▲한철경61	▲한태수69	▲이우철74	▲이인건63			
▲유충우65	▲유현일61	▲황광웅63	▲황정하76	▲한상욱61	▲홍성근61	▲이일우60	▲이재룡54	▲곽영욱72		
▲윤강섭76	▲윤계섭67	▲황정한69	▲황종홍50	▲한해룡60	▲황기현80	▲이재현65	▲이정란63			
▲윤봉섭79	▲윤여표92	▲황환무52	▲황희규70	▲황국웅83	◇文理科大學	▲이정숙57	▲이종석68	▲구만희80		
▲윤익성96	▲윤재수92	◇農科大學				▲이창규58	▲이진환74			
▲윤창준86	▲이 석52					▲이한국55	▲이택주70	▲권기범77		
▲이 향87	▲이 훈84					▲이해선72	▲이해남70			
▲이경기59	▲이경택61	▲강봉순72	▲강정모69	▲강대건63	▲강신혁73	▲이희준74	▲임동규59	▲권영상82		
▲이경한69	▲이계원72	▲계경성71	▲곽유신86	▲강인규63	▲강한영51	▲임성기66	▲임승준57			
▲이광인82	▲이국종60	▲권 철65	▲김경배62	▲고광희71	▲구봉희66	▲임운봉64	▲임인철57	▲권혁구61		
▲이규재47	▲이규재71	▲김관호72	▲김대경55	▲구창립63	▲권명희68	▲장동식55	▲장종표60			
▲이기학81	▲이돈원95	▲김동태66	▲김병도60	▲권민웅68	▲권오양72	▲전무배56	▲전병식56	▲김교두72		
▲이동녕61	▲이명조68	▲김상조79	▲김시흥73	▲권호택72	▲김경희61	◇法科大學				
		▲김영규55	▲김영환62	▲김광석72	▲강신혁73	▲김수장66				
					▲강한영51					
					▲구봉희66	▲김승규68				
					▲권명희68					
					▲권오양72	▲김영갑78				
					▲권일중57					
					▲김경희61	▲김일권68				
					▲김규완60					
						▲김재춘56				
						▲김종건65				
						▲김주일58				
						▲김중양69				
						▲김창희86				
						▲김태훈72				
						▲김학문57				
						▲김현수84				
						▲김형철63				
						▲나경식65				

▲남 승⁶⁴
▲노홍희⁵⁷
▲문광삼⁷⁴
▲민예순⁶¹
▲박문영⁶⁵
▲박성철⁷⁹
▲박영하⁷⁵
▲박종우⁷⁰
▲박진우⁶⁵
▲박태경⁸⁵
▲박현태⁵⁶
▲반성우⁵⁹
▲배두남⁶⁵
▲변웅재⁹³
▲서상원⁶¹
▲서용찬⁸⁹
▲서헌진⁶⁴
▲성봉경⁸²
▲송영식⁶⁶
▲송치홍⁶⁸
▲신흥기⁸⁶
▲심재갑⁵⁶
▲심창섭⁷⁷
▲안병우⁷⁰
▲안성희⁷⁰
▲안재홍⁸⁴
▲양영철⁸⁶
▲어운배⁵⁸
▲염정훈⁴⁹
▲오세빈⁷²
▲오홍주⁷⁴
▲유상렬⁶⁴
▲유영해⁴⁶
▲유재방⁴²
▲유대길⁵⁷
▲윤용남⁶⁴
▲윤진호⁷⁰
▲이민재⁵⁷
▲이상건⁸²
▲이상철⁶³
▲이석조⁷¹
▲이세훈⁶¹
▲이승환⁵⁹
▲이우근⁷¹
▲이재현⁷⁴
▲이정운⁶⁵
▲이종학⁶⁴
▲이준영⁵⁹
▲이태창⁶⁵
▲임광규⁶²
▲임안식⁷⁷
▲장용락⁶⁷
▲정구환⁷⁷
▲정동섭⁴⁰
▲정명호⁸⁰
▲정상명⁷²
▲정성호⁸⁵
▲정우영⁸³
▲정형만⁷⁴
▲조대연⁷³
▲조용석⁵⁸
▲조정식⁷²
▲지승원⁷²
▲차동천⁶⁹
▲최강섭⁸²
▲최병주⁸²
▲최수만⁶⁶
▲최정식⁶¹
▲최형모⁵⁷
▲한 용⁶⁶
▲한득추⁵⁹
▲한영수⁸⁸
▲허진호⁶⁸

▲노정일⁸²
▲도지훈⁵⁶
▲문상목⁷⁰
▲박명석⁵⁶
▲박민환⁷⁰
▲박영열⁷⁹
▲박정하⁶⁵
▲박지영⁴¹
▲박찬모⁴²
▲박태훈⁷⁰
▲박희건⁶³
▲방순원³⁵
▲백인창⁷⁴
▲서돈양⁶⁰
▲서승완⁶⁴
▲서재국⁶⁴
▲성기창⁷⁰
▲손정주⁵⁴
▲송진원⁶³
▲신봉식⁵⁸
▲심상철⁸⁰
▲심재돈⁷⁶
▲안동호⁴⁹
▲안병찬⁶⁵
▲안영도⁶⁹
▲안태현⁵⁴
▲양재환⁷⁶
▲염동희⁵⁵
▲오강근⁶⁸
▲오오현⁶⁶
▲유동렬⁵⁴
▲유승렬⁵⁹
▲유인수⁶¹
▲유준형⁶⁶
▲유호민⁶⁷
▲윤익수⁵⁷
▲이극로⁷⁰
▲이보영⁵⁸
▲이상덕⁶⁴
▲이상철⁸³
▲이성우⁸⁴
▲이순우⁶²
▲이용남⁶³
▲이재철⁴⁸
▲이재호⁶⁶
▲이제재⁶¹
▲이준상⁴³
▲이진홍⁸⁰
▲임 경⁸²
▲임성권⁸³
▲임철복⁵⁹
▲정건용⁷³
▲정덕모⁷⁹
▲정동일⁶⁵
▲정상립⁶⁴
▲정성문⁶⁷
▲정용재⁶⁴
▲정진환⁶¹
▲조관기⁶¹
▲조세연⁵⁷
▲조우현⁸⁰
▲주병국⁵⁷
▲진형균⁶¹
▲채수철⁷¹
▲최귀인⁶⁰
▲최성창⁷⁹
▲최정덕⁶⁵
▲최준호⁵⁶
▲태범식⁵⁵
▲한동우⁷⁰
▲한부환⁷⁰
▲허무정⁷⁵
▲홍광식⁷¹

▲홍기인⁶⁹
◇師範大學
▲강성주⁷⁵
▲강호봉⁶²
▲곽병선⁷⁰
▲구영주⁷⁶
▲권행준⁷³
▲김경자⁷⁵
▲김규영⁴⁴
▲김기숙⁶⁸
▲김달우⁸¹
▲김득실⁴⁴
▲김병국⁶³
▲김병일⁷⁷
▲김상천⁶⁹
▲김석구⁵⁰
▲김선식⁶²
▲김소순³⁹
▲김억관⁷¹
▲김영숙⁴⁷
▲김용복⁶¹
▲김원석⁶¹
▲김인표³⁸
▲김재성⁷¹
▲김정란⁶³
▲김종규⁶⁶
▲김종섭⁵¹
▲김종욱⁵⁸
▲김진후⁷⁸
▲김태희⁴⁵
▲김학수⁵⁷
▲김흥기⁶⁵
▲박관호⁵¹
▲박상일⁵⁰
▲박승희⁵⁵
▲박용설⁷⁶
▲박재근⁶⁵
▲변재익⁶⁵
▲서지영⁵⁷
▲성본섭⁶⁶
▲송옥화⁵⁹
▲신각범⁵⁸
▲신중성⁶⁵
▲신희명⁵⁴
▲심상필⁵⁴
▲안승렬⁷²
▲유광렬⁵⁶
▲유남두⁶¹
▲유오진⁶²
▲이 윤⁷¹
▲이기태⁶⁵
▲이덕환⁵⁷
▲이병관⁵⁷
▲이복환⁷⁷
▲이순권⁷⁷
▲이영배⁴⁴
▲이영주⁶⁴
▲이완식⁶¹
▲이용률⁵⁶
▲이인규⁶⁵
▲이일훈⁵³
▲이정옥⁶²
▲이정환⁷⁰
▲이종순⁵⁶
▲이주연⁷⁹
▲이태근⁵⁴
▲이현재⁵⁷
▲이회운⁵¹
▲임부철⁸⁶
▲장기문⁷²
▲장동우⁷⁶
▲장완배⁶⁶

▲황형모⁷⁵
▲강의식⁵⁷
▲공소목⁴²
▲곽형기⁷⁵
▲구자혁⁶²
▲금승호⁶⁴
▲김광숙⁶⁹
▲김기민⁷⁹
▲김기우⁸⁰
▲김덕호⁷³
▲김명자⁴⁵
▲김병수⁶⁴
▲김상렬³⁹
▲김상현⁷⁰
▲김석훈⁷⁹
▲김성례⁶¹
▲김수형⁶⁵
▲김영수⁷⁴
▲김영식⁷⁵
▲김용선⁷¹
▲김은숙⁵⁵
▲김장천⁷²
▲김재철⁷⁷
▲김정식⁶⁵
▲김종기⁵⁵
▲김종욱³⁹
▲김지은⁷⁴
▲김철련⁶¹
▲김하준⁷⁷
▲김형기⁷⁶
▲나정환⁶⁶
▲박덕자⁸⁶
▲박성권⁷⁶
▲박영목⁷⁰
▲박인식⁵²
▲박희문⁶⁰
▲서수현⁵⁵
▲서태근⁵⁶
▲손옥호⁷⁶
▲송대성⁶⁸
▲신정선⁶⁰
▲신창호⁴¹
▲심광한⁶²
▲안성도⁶⁵
▲오상규⁷⁷
▲유광원⁷⁹
▲유시락⁶¹
▲유정숙⁶⁸
▲이경희⁷⁵
▲이덕재⁵⁶
▲이동욱⁷³
▲이병무⁵²
▲이상규⁶⁰
▲이신규⁶³
▲이영숙⁷⁴
▲이영호⁶⁰
▲이왕근⁷³
▲이용정⁴⁹
▲이인내⁸⁶
▲이재용⁹⁰
▲이정호⁷⁰
▲이종덕⁶⁴
▲이종희⁴⁰
▲이진홍⁶⁹
▲이학영⁷⁰
▲이형근⁸⁴
▲이희숙⁶⁵
▲장근호⁵⁵
▲장기철⁷¹
▲장병환⁵⁶
▲장한업⁸⁶

▲장효원⁴¹
▲전세표⁷¹
▲전신재⁶⁵
▲전의숙⁷²
▲정두현⁶⁴
▲정선영⁷⁰
▲정지오⁷³
▲제귀연⁹⁴
▲조규태⁵⁵
▲조영달⁸³
▲조정휘⁶⁵
▲주진규⁸⁰
▲진성덕⁶⁰
▲최돈형⁷²
▲최윤경⁸⁷
▲최종승⁷⁰
▲추건이⁶³
▲하상기⁷⁸
▲한정교⁶¹
▲홍기용⁵⁷
▲홍성흙⁵²
▲황광수⁶¹
▲황정옥⁶⁷
◇商科大學
▲강 욱⁶⁰
▲강동구⁵⁷
▲강영중⁷⁰
▲계영희⁵⁹
▲곽대운⁷²
▲권계홍⁶³
▲권영욱⁵⁹
▲기병태⁵⁷
▲김기영⁶¹
▲김명제⁵⁷
▲김승환⁷¹
▲김영빈⁷²
▲김영섭⁷⁰
▲김용성⁶²
▲김재현⁴⁵
▲김정훈⁵⁴
▲김중수⁷³
▲김진재⁶³
▲김천기⁶⁶
▲김형기⁷⁶
▲김홍배⁶⁷
▲남영우⁷³
▲명영삼⁶⁰
▲문현삼⁶⁵
▲민경희⁷⁰
▲박 철⁶⁸
▲박승규⁵⁵
▲박용민⁷²
▲박용욱⁵⁷
▲박종석⁶⁹
▲박창규⁶¹
▲배무기⁶²
▲배영한⁵⁸
▲배종섭⁶³
▲서기원⁵⁰
▲서연호⁵⁶
▲서재인⁷⁰
▲손건래⁵⁹
▲손창훈⁶³
▲손흥근⁶¹
▲송승호⁶⁵
▲송원일⁷⁵
▲송정위⁶⁶
▲신영균⁶⁸
▲신직섭⁵⁷
▲안경삼⁶⁶
▲양승우⁷²

▲전관수⁵⁹
▲전수남⁶³
▲전우창⁴⁴
▲정계순⁵⁹
▲정부길⁶⁴
▲정정자⁶⁰
▲정항시⁶⁴
▲조광준⁵⁷
▲조병두⁶⁵
▲조예행⁴⁰
▲조정희⁴⁵
▲지충성⁶¹
▲진래현⁵⁶
▲최만희⁶²
▲최재진⁶⁰
▲최홍진⁵³
▲추인호⁷⁵
▲하영호⁶⁰
▲홍경모⁵⁴
▲홍성화⁶³
▲홍종배⁷²
▲황세열⁵⁹
▲황정원⁸⁸
▲강기호⁷²
▲강신수⁶¹
▲강유식⁷¹
▲고경식⁶⁷
▲구영보⁷³
▲권영두⁶⁵
▲권이성⁵⁶
▲김 동⁷¹
▲김동웅⁶⁵
▲김보한⁵⁰
▲김시담⁶²
▲김영상⁴⁸
▲김영신⁶¹
▲김인호⁶⁵
▲김정우⁶⁹
▲김종찬⁶³
▲김진우⁶³
▲김창수⁷²
▲김한봉⁶⁵
▲김형수⁷⁰
▲김환모⁶⁷
▲노영환⁵⁹
▲문학모⁶⁴
▲문환일⁵⁸
▲민은홍⁶²
▲박성출⁶⁶
▲박영철⁶³
▲박용선⁵⁶
▲박정호⁵⁰
▲박지건⁶⁴
▲박창록⁵⁹
▲배선홍⁴⁹
▲배종규⁶¹
▲배지렬⁵⁷
▲서방세⁷²
▲서영택⁶²
▲서정욱⁶⁵
▲손재환⁷³
▲손한주⁶²
▲송국현⁶²
▲송우익⁷⁵
▲송인덕⁶⁹
▲송호수⁵³
▲신영일⁶⁵
▲심재윤⁷¹
▲안재동⁶⁷
▲여구연⁵⁶

▲오길영⁴²
▲오세현⁶²
▲원정연⁶⁷
▲유병무⁷¹
▲유영상⁷¹
▲윤석한⁴⁰
▲이경재⁶¹
▲이경훈⁶⁷
▲이관우⁷⁴
▲이기선⁶¹
▲이기호⁵⁵
▲이만순⁶³
▲이상운⁶⁶
▲이세선⁶²
▲이승우⁵⁷
▲이영상⁶⁴
▲이윤우⁷⁰
▲이종석⁵⁹
▲이진영⁶¹
▲이창숙⁶¹
▲이하룡⁷³
▲이현출⁷²
▲이홍일⁷⁴
▲이희원⁶⁹
▲임지순⁴³
▲임창열⁶⁶
▲장용수⁶⁴
▲장태영⁴⁹
▲정광홍⁶²
▲정기현⁷⁰
▲정봉수⁷⁰
▲정상철⁶⁶
▲정인복⁴⁸
▲정종순⁶⁹
▲정대진⁵³
▲조규재⁵⁴
▲조상호⁶³
▲조현문⁶⁴
▲채필석⁶³
▲최남규⁶⁴
▲최준철⁶⁵
▲최창길⁶⁴
▲한상동⁴²
▲김덕원⁵⁴
▲김민영⁵⁴
▲김환경⁵³
▲방효범⁵⁹
▲신현일⁶¹
▲이준섭⁵⁸
▲전세규⁵⁴
▲정태규⁶⁰
▲최용석⁷⁸
▲최훈희⁷⁵
▲강삼식⁶⁹
▲김경수⁸⁰
▲김근환⁶⁸
▲김부근⁶⁴
▲김수형⁵⁰
▲김영호⁵²
▲김재곤⁶³
▲김현욱⁶¹
▲노경희⁵²
▲마상환⁷⁰
▲박봉호⁵⁵
▲박윤호⁶²
▲박찬수⁶⁶
▲배은상⁶⁰
▲서중완⁸⁴
▲손동하⁴⁹

▲오세종⁶⁵
▲우영주⁶⁷
▲유경현⁶²
▲유석기⁶¹
▲유창희⁷¹
▲윤정근⁵⁸
▲이경훈⁶⁰
▲이관규⁶⁵
▲이극중⁶⁶
▲이기웅⁷²
▲이대희⁶⁰
▲이문원⁷⁰
▲이성위⁶⁵
▲이세장⁵⁹
▲이연형⁵⁹
▲이영호⁶⁹
▲이은면⁵³
▲이종휘⁷⁰
▲이찬구⁶¹
▲이철영⁶⁸
▲이해익⁶⁴
▲이형조⁵⁹
▲이희련⁶⁴
▲임정일⁶⁶
▲임창무⁵⁷
▲장기남⁶⁸
▲장절준⁷³
▲전복규⁶⁰
▲정기영⁷¹
▲정문모⁶⁵
▲정상근⁷²
▲정의연⁶⁸
▲정정숙⁵³
▲정태성⁷³
▲정하용⁷³
▲조상규⁶⁴
▲조한영⁴⁹
▲좌승희⁷¹
▲채현석⁶⁴
▲최대현⁶¹
▲최진택⁶⁵
▲추호석⁷³
▲황규백⁶⁹
▲김동훈⁶⁰
▲김본원⁶⁷
▲문선창⁷⁴
▲변영근⁵⁶
▲원병희⁶⁵
▲장재홍⁶³
▲정언승⁹⁴
▲조광영⁵⁹
▲최홍렬⁷³
▲홍중수⁵⁹
▲공영운⁶⁴
▲김귀숙⁸³
▲김만국⁵⁰
▲김성래⁵⁷
▲김영전⁵³
▲김인경⁶⁷
▲김조한⁵⁹
▲김효중⁷⁹
▲류근호⁹⁰
▲문창기⁶⁸
▲박성희⁸⁸
▲박정희⁵⁵
▲방창학⁴⁹
▲서광수⁶⁸
▲서창익⁴⁸
▲손선일⁶⁴

▲신박일⁶⁴
▲신지현⁹⁵
▲심상혁⁴⁹
▲양중익⁷⁰
▲우숙희⁵⁴
▲유영욱⁹⁴
▲이병선⁴⁹
▲이심성⁵⁷
▲이은수⁶⁰
▲이재원⁶⁷
▲이종율⁷⁸
▲이진옥⁷¹
▲이형규⁷⁸
▲임남철⁵⁵
▲임용완⁵⁶
▲정성욱⁷⁴
▲정연심⁵⁸
▲정지석⁶⁴
▲조미정⁹¹
▲조영준⁷³
▲조지웅⁵⁹
▲주상섭⁶⁹
▲채계순⁵⁶
▲최근한⁵³
▲최숙경⁵⁹
▲한정환⁷²
▲한한길⁶⁷
▲홍순태⁷¹
▲황광진⁶⁹
◇音樂大學
▲고숙종⁵⁹
▲김민자⁷⁰
▲김원식⁵⁶
▲문병찬⁶¹
▲박은희⁷³
▲박희정⁶⁹
▲성심은⁷⁵
▲심미영⁸²
▲우시현⁶⁹
▲이영자⁵⁹
▲이정희⁶²
▲이훈복⁶²
▲장은영⁷⁶
▲전혜옥⁷⁹
▲정화자⁶⁴
▲천정희⁸⁷
▲최덕천⁸²
▲홍지나⁹⁶
▲김명진⁶⁵
▲김영숙⁵²
▲김홍인⁶⁹
▲문용일⁷⁷
▲박정호⁶⁰
▲백혜숙⁷⁵
▲손명진⁷⁵
▲오양구⁶⁹
▲이상룡⁶⁶
▲이정화⁹⁶
▲이효분⁷¹
▲장영란⁸⁰
▲장혜숙⁵⁹
▲정규주⁷⁷
▲조학현⁶⁵
▲최 충⁵⁶
▲최효열⁷³
▲황철익⁵⁷

▲신복영⁷⁶
▲신화용⁵⁰
▲안성숙⁸⁶
▲오병민⁵⁵
▲우제안⁶¹
▲이대희⁵⁰
▲이상은⁵⁸
▲이오직⁵⁴
▲이재양⁵⁷
▲이종규⁷¹
▲이종호⁹⁴
▲이태규⁵⁹
▲이형우⁶⁰
▲임순택⁵⁸
▲정구경⁵⁹
▲정순경⁹⁵
▲정정희⁶²
▲정춘희⁵³
▲조병환⁵⁵
▲조정식⁶⁶
▲조현영⁸⁵
▲주학유⁷⁴
▲최경희⁵⁸
▲최명식⁶⁸
▲하성상⁶⁴
▲한청수⁸⁰
▲현덕성⁷⁰
▲홍옥선⁶⁹
▲황희숙⁸⁴
◇醫科大學
▲강문수⁴⁹
▲계수덕⁴⁹
▲권기익⁷⁷
▲김동수⁸³
▲김명환⁵¹
▲김상준⁷²
▲김순배⁸⁴
▲김원홍⁸⁵
▲김충수⁷⁵
▲명나혜⁸⁸
▲민병섭⁶⁰
▲민충기⁴⁷
▲박웅재⁴⁴
▲박정식⁷⁵
▲성기준⁵⁶
▲송영섭⁴⁸
▲신찬수⁸⁷
▲심용석⁶⁵
▲안영찬⁵⁹
▲안희영⁷²
▲오수정⁷²
▲강진영⁷³
▲고영석⁵⁴
▲권영조⁶²
▲김동현⁸⁷
▲김병국⁷⁰
▲김수경⁸⁵
▲김용흙⁷⁹
▲김일동⁸³
▲김태윤⁵²
▲문체구⁵⁹
▲민영일⁶⁵
▲박순일⁵⁷
▲박이철⁴³
▲서유현⁷³
▲송동근⁸¹
▲송익상⁶⁷
▲신현철⁵²
▲안병완⁷⁶
▲안형재⁸⁴
▲양희진⁸⁸
▲원상희⁸¹

▲유운정77
▲유지문60
▲윤병우80
▲이규동59
▲이상동78
▲이성선50
▲이원형70
▲이인섭77
▲이종성69
▲이종혁62
▲이태정74
▲이호급63
▲장자준77
▲전호성82
▲정운재81
▲조규상48
▲주규완50
▲최현80
▲최원로48
▲최현규58
▲한달선64
▲한상룡75
▲홍원선77

◇齒科大學

▲강정모86
▲김각균78
▲김광주75
▲김남주59
▲김명철50
▲김부근58
▲김영렬83
▲김원식86
▲김정수89
▲김종배62
▲김종훈84
▲김진태58
▲김해만42
▲목영준53
▲박경옥73
▲박경준83
▲박명선83
▲박순원66
▲박정봉66
▲백승진83
▲서영규45
▲신순일67
▲안규소72
▲양동규57
▲왕상현57
▲유태영69
▲윤임도78
▲이강주77
▲이상대74
▲이상훈81
▲이승은89
▲이원복58
▲이인창60
▲이종철82
▲이창영81
▲장명우89
▲정관서85
▲정성창67
▲정현영77
▲조인호74
▲조헌제83
▲한광수78
▲한충일84
▲황정일70

◇大學院

▲구윤서84

▲유정현96
▲윤번수71
▲윤보현79
▲이명희78
▲이선철47
▲이영우60
▲이운호74
▲이재순56
▲이종일54
▲이찬세39
▲이해영75
▲임환철52
▲전동수50
▲정기석83
▲정재면89
▲조병득57
▲주일중84
▲최동섭75
▲최익렬42
▲하정훈85
▲한동수55
▲한예택67
▲황순욱78

▲김건85
▲김건모72
▲김교식78
▲김명국58
▲김법환85
▲김시웅86
▲김원범85
▲김재형77
▲김정자65
▲김종홍59
▲김진규62
▲김창희68
▲동방진84
▲문명용84
▲박경정75
▲박기호61
▲박순서79
▲박용환73
▲박찬석56
▲백철호83
▲설동진56
▲심경숙85
▲안종경84
▲오경서58
▲우진오78
▲윤수한61
▲윤철민88
▲이규철71
▲이상현97
▲이순득61
▲이영종64
▲이인경88
▲이점식68
▲이종훈61
▲이희병78
▲장묘안90
▲정만영58
▲정행남68
▲조달문68
▲조한국68
▲최병택61
▲한수부67
▲허만욱62

◇環境大學院

▲강덕원87
▲김길동87
▲이명수74
▲채승기83
▲홍성표76
▲가갑손18
▲곽병구17
▲구자욱36
▲권익부36
▲김기열30
▲김병순4
▲김보현23
▲김성규29
▲김영재36
▲김중협28
▲김준호38
▲김중환24
▲김치곤7

▲김도현76
▲김상균70
▲김장진76
▲김형국67
▲박남건86
▲방인태84
▲신응배65
▲안수영86
▲이정도69
▲장상용65
▲정진석76
▲최익86

◇經營大學院

▲김종인67
▲김형기70
▲박홍식71
▲이홍렬72
▲최문경74

◇教育大學院

▲정병관69

◇保健大學院

▲강인구71
▲김순례77
▲박남영60
▲오세중77
▲이유원75

◇司法大學院

▲송동섭66

◇新聞大學院

▲오인태69
▲이정자75
▲조용철68
▲황우권72

◇行政大學院

▲강인준73
▲곽재규73
▲김세호85
▲김환주88
▲손진관64
▲우성규82
▲임세환71
▲최상선63
▲허재구73

◇環境大學院

▲강덕원87
▲김길동87
▲이명수74
▲채승기83
▲홍성표76

◇최고경영자과정

▲가갑손18
▲곽병구17
▲구자욱36
▲권익부36
▲김기열30
▲김병순4
▲김보현23
▲김성규29
▲김영재36
▲김중협28
▲김준호38
▲김중환24
▲김치곤7

▲김문한82
▲김운성84
▲김진수85
▲문희수64
▲박용봉76
▲백선기81
▲신철호88
▲안현진73
▲이시운81
▲이정의77
▲정기화71
▲지충수77
▲한대성88

▲김종필75
▲박의송72
▲배동훈70
▲장영기68
▲최의목68

▲조낙현77

▲김공현77
▲민병찬77
▲신현일66
▲윤인희82
▲전영자75

▲황상현69

▲이민희75
▲조봉계74
▲최성봉73

▲공천오69
▲권기성79
▲김창락62
▲박재석73
▲우성규65
▲이원우62
▲최희성71
▲하정봉96
▲황근식63

▲김기욱73
▲배효숙86
▲정덕주82
▲최강림93
▲황학래74

▲강호정38
▲구광길33
▲권웅현32
▲김교철25
▲김기택18
▲김병원1
▲김선제27
▲김성택39
▲김윤동22
▲김주훈19
▲김중성39
▲김충세10
▲김항구40

▲김홍주25
▲남문우31
▲문병하13
▲문정국31
▲박수남33
▲박익순31
▲박종형9
▲배운섭15
▲백운광9
▲변형두12
▲선우영39
▲송보열21
▲신중규4
▲심장섭40
▲양재봉1
▲오동빈22
▲원동진1
▲유병봉8
▲유하민25
▲윤봉준1
▲이득춘35
▲이병성2
▲이성연4
▲이소동6
▲이영식31
▲이용남3
▲이재선30
▲이정식13
▲이중아37
▲이태수40
▲이한규23
▲인형무23
▲장석규2
▲장지량10
▲전경두23
▲전재영37
▲정재성7
▲조각래28
▲조용호41
▲지종우6
▲진희규34
▲최영철20
▲최정현5

▲김종필75
▲박의송72
▲배동훈70
▲장영기68
▲최의목68

▲조낙현77

▲김공현77
▲민병찬77
▲신현일66
▲윤인희82
▲전영자75

▲황상현69

▲이민희75
▲조봉계74
▲최성봉73

▲공천오69
▲권기성79
▲김창락62
▲박재석73
▲우성규65
▲이원우62
▲최희성71
▲하정봉96
▲황근식63

▲김기욱73
▲배효숙86
▲정덕주82
▲최강림93
▲황학래74

▲강호정38
▲구광길33
▲권웅현32
▲김교철25
▲김기택18
▲김병원1
▲김선제27
▲김성택39
▲김윤동22
▲김주훈19
▲김중성39
▲김충세10
▲김항구40

▲나승렬33
▲류근하32
▲문영일26
▲민경관30
▲박신지34
▲박종관12
▲박치현15
▲백복기29
▲변규섭3
▲서진하2
▲손희주13
▲신성택38
▲신홍근30
▲안종표36
▲오도영7
▲오일랑30
▲유명화36
▲유재명34
▲윤기선33
▲윤석홍23
▲이득호18
▲이석범31
▲이성철12
▲이승배37
▲이영희30
▲이응상40
▲이정린33
▲이정희38
▲이태섭5
▲이택천37
▲이화일13
▲임충현18
▲장재철39
▲장호근16
▲전우연20
▲정덕상35
▲정진구17
▲조내벽31
▲조한춘2
▲진재순36
▲최수부15
▲최인호12
▲최종욱15

▲김종필75
▲박의송72
▲배동훈70
▲장영기68
▲최의목68

▲조낙현77

▲김공현77
▲민병찬77
▲신현일66
▲윤인희82
▲전영자75

▲황상현69

▲이민희75
▲조봉계74
▲최성봉73

▲공천오69
▲권기성79
▲김창락62
▲박재석73
▲우성규65
▲이원우62
▲최희성71
▲하정봉96
▲황근식63

▲김기욱73
▲배효숙86
▲정덕주82
▲최강림93
▲황학래74

▲강호정38
▲구광길33
▲권웅현32
▲김교철25
▲김기택18
▲김병원1
▲김선제27
▲김성택39
▲김윤동22
▲김주훈19
▲김중성39
▲김충세10
▲김항구40

▲최현규14
▲한수18
▲한영길38
▲한주석34
▲홍병래38
▲황규성37

◇최고산업전략과정

▲김광식11
▲김원주3
▲김장환3
▲김주곤3
▲김형우8
▲박노관1
▲박양한8
▲박한창17
▲서영식15
▲예상호8
▲우동석7
▲유재필4
▲이병희5
▲이용완17
▲이원해15
▲이찬경15
▲장응순17
▲정영화15
▲조성락12
▲최일웅17
▲한도식15
▲황용환17

◇국가정책과정

▲고세일32
▲권영후25
▲김광수41
▲김상철2
▲김수중5
▲김연수16
▲김용철42
▲김진기7
▲남철10
▲노희식38
▲도흥기35

▲피홍배11
▲한유30
▲한영철17
▲함태호11
▲홍봉래4

▲김문웅4
▲김일수14
▲김정중15
▲김풍련12
▲남형우4
▲박대천15
▲박영윤5
▲배창환14
▲신용웅3
▲오시덕17
▲유각목5
▲윤명환14
▲이상희15
▲이원욱17
▲이육수15
▲이희창15
▲정도현7
▲정운경6
▲채대석15
▲최정호17
▲한상수15

◇국가정책과정

▲권영배40
▲김남28
▲김기욱35
▲김성호44
▲김승영43
▲김용성41
▲김중화43
▲김홍원35
▲노재우16
▲노희찬33
▲박명규40

▲박성득20
▲박영순43
▲박정길42
▲복진태33
▲손문창14
▲송근호33
▲신태희32
▲염길용11
▲오환근9
▲원광호36
▲유병국30
▲유홍열36
▲이경우37
▲이명원35
▲이상구6
▲이정구22
▲이종성33
▲이택형21
▲이희평34
▲장기익6
▲장호경27
▲전해성33
▲정희천23
▲조일현37
▲진진형42
▲최봉인11
▲황교선39
▲황진하42

◇고급금융과정

▲권혁운5
▲김철근1
▲문형구7
▲심충식3
▲유평규7
▲이규범9
▲이병성1
▲임천모9
▲조영천1
▲하은환10

▲박신언16
▲박용암43
▲박정원32
▲서정권2
▲손정식44
▲송영진36
▲안중기39
▲오필기2
▲우성21
▲원정부31
▲유영우35
▲윤경숙43
▲이규식6
▲이범창29
▲이점우40
▲이정수35
▲이종택12
▲이희수21
▲장훈21
▲장해익34
▲전영진34
▲정용남24
▲조영포43
▲진강현20
▲차진모43
▲허재구28
▲황의철5

월계 = 50,390,000원
누계 = 452,318,536원

“지금 동창회 신용카드를 신청하세요”

〈발급기간: 9월 1일 ~ 9월 30일〉

개 인

◇人文大學

▲김명중88

▲변성수89

◇社會科學大學

▲이동희87

▲정교필85

◇經營大學

▲김남곤93

▲최병엽85

◇工科大學

▲곽병근70

▲김상훈93

▲남궁각95

▲박병윤85

▲박웅진55

▲송하영78

▲전영국66

▲조원준88

◇農科大學

▲강성55

▲이정영56

◇文理科大學

▲신현영70

▲이재익64

◇美術大學

▲전덕수89

◇法科大學

▲공도식62

▲김인수51

▲이수희91

◇師範大學

▲김은숙55

◇商科大學

▲박경하88

▲이춘무64

◇獸醫科大學

▲이도필53

◇藥學大學

▲조용훈88

◇醫科大學

▲이창인78

◇經營大學院

▲이광수77

◇保健大學院

▲강신호70

◇行政大學院

▲장만철88

◇국가정책과정

▲구본길23